2023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최종보고집

▣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군포시의회

2023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 동 결 과 보 고 집

▣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군포시의회

목 차

▣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 1

Ⅰ. 연구배경, 목적 ---------- 5

Ⅱ. 연구모임 활동 ---------- 9

Ⅲ. 언론보도 등 ---------- 24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table>
<tr><td colspan="2">연 구 단 체 명</td><td colspan="2">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td></tr>
<tr><td rowspan="2">연구내용</td><td>연구주제</td><td colspan="2">군포시 지역특색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td></tr>
<tr><td>연구목적</td><td colspan="2">군포시 지역특색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체계 강화 및 지역 경제의 발전 도모</td></tr>
<tr><td rowspan="5">연
구
활
동
비</td><td>총 액</td><td colspan="2">금 22,000,000 원 (노무비, 경비 등)</td></tr>
<tr><td>집행액</td><td colspan="2">금 22,000,000 원</td></tr>
<tr><td>잔 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 rowspan="2">집행내역</td><td>연구용역</td><td>금 이천이백만원 (₩ 22,000,000)</td></tr>
<tr><td>연구용역 외
연구활동비</td><td></td></tr>
<tr><td colspan="2">활용실적(계획)</td><td colspan="2">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 방안 마련</td></tr>
</table>

붙 임 1.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집행 관련 증빙자료 1부.

2023년 11월 30일

제출인 : 대표의원 박 상 현 (인)

군포시의회 의장 귀하

▣ 붙임 1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2023. 11.

군포시의회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군포시의회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 참여의원 ▣

대표의원 박상현

연구의원 이길호, 신경원, 이훈미

▣ 함께 하신 분 ▣

군포시 한세대학교 대학원 원장 최광돈

군포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정곤

군포시 한세대학교 IT학부 부교소 이왕헌

군포시 ㈜뉴수소에너지 대표이사 김용우(예비역 해군대령)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강상규(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역임)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함정기술센터 센터장 교수 김범석

한화오션 특수선해외사업단장 정승균(예비역 해군중장)

LIG Nex1 C4ISTAR사업2본부 상무 이승주(예비역 해군준장)

과천시 ㈜과천아이텍 대표이사 안중현(과천시의원 역임)

연구의원 소개

의 원		경 력
대표의원 박상현	 라선거구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대변인 현)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대외협력팀 운영위원 전) 국민의힘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대변인 전) 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연구의원 이길호	 나선거구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전) 제8대 군포시의회 의원 전) 제6대 군포시의회 의원 전) 군포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전) 이재명 선대위 미래광장위원회 경기본부 위원장
연구의원 신경원	 다선거구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전반기 부의장, 국민의힘 대표의원) 현) 군포성오장학재단 이사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대변인 현) 굿모닝컴 대표 전) 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1기신도시 특별법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연구의원 이훈미	 가선거구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현) 민주평화통일회의 자문위원 전) ㈜삼성전자 국내영업본부 중부지사 마케팅팀 전) ㈜미미월드 홍보, 마케팅 팀장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단 체 명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연구주제	군포시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활동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8월 31월
구성의원	- 대표의원 : 박상현 - 연구의원 : 이길호, 신경원, 이훈미
연구목적	군포시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체계강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도모
연구활동비 지원요구액	22,000,000원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

- 대표의원 박상현 -

1. 연구 목적

○ 군포시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산업활성화를 통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체계 강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도모

2. 연구배경

○ 군포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경기도에서 최하위권

○ 수소는 저탄소 트렌드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국내 기술력 향상의 필요성이 큰 분야로 군포시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를 통하여 군포시 산업의 활성화 수단으로 이용 효용성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

* 정부,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 지원,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 등 수소산업 확장

○ 미래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 및 수도권내 수소 R&D 특화도시 선정추진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의 발전도모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수소산업 및 수소 R&D 특화도시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 관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소산업 정책발전 및 허브 역할 강화 방안

○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외 현안파악 및 중장기 조직구성 방안 제안

4. 연구방법

○ 군포시 수소산업활성활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학술연구용역

○ 관내·외 수소산업 분야 연구기관(대학, 업체 등)과 협업회의 개최

○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시민 및 관내업체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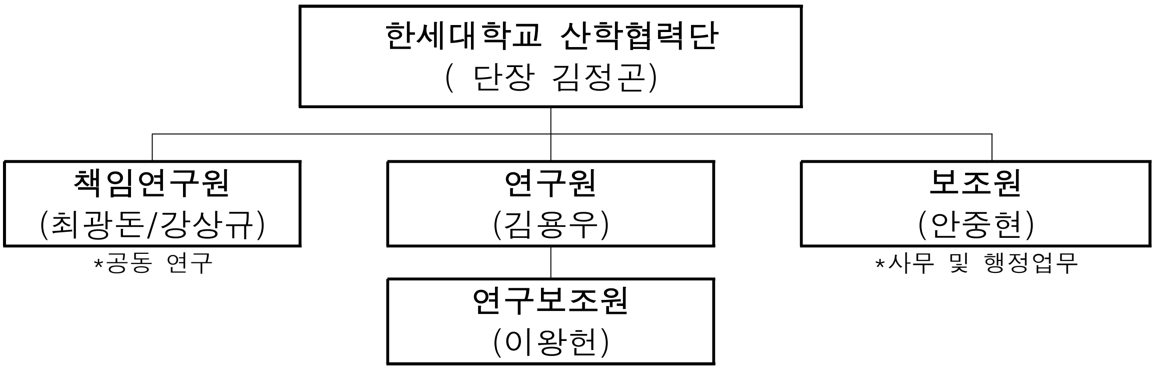
5. 학술연구용역

○ 과 업 명 :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 활동기간 : 2023. 06. 01 ~ 2023. 08. 31(준공 2023. 10. 11)

○ 책임 및 감수 : 대표의원 박상현, 연구의원 이길호, 신경원, 이훈미

○ 연구용역 조직



○ 연구용역 연구원

구 분	인 적 사 항			비 고
	성 명	현직책 및 경력	학 위	
책임연구원	최광돈	• 現, 한세대학교 대학원 원장 • ESG전문가(한국경제인연합회) • 한국IT서비스학회 부회장	경영학박사	kdchoiyou@naver.com
	강상규	• 現, 서울대학교 부교수 • ’20년~’22년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 수소시범도시 사업계획서 관련 자문 등	공학박사	kyu2613@gmail.com
연 구 원	김용우	• 現, ㈜뉴수소에너지 대표이사 • 前, 국산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참여 • 前,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운용 등	국제학석사	kyw670@naver.com
연구보조원	이왕헌	• 現, 한세대 학과장 교수 • 前, 한세대 산학협력단장 • 前, 한세대 창업보육센터장	공학박사	whlee@hansei.ac.kr
보 조 원	안중현	• 現, ㈜과천아이텍 대표이사 • 前,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 • 前, 과천시 시의원	교육학석사	anja7780@naver.com

6. 세부추진계획

회차	일정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1차	2023년 1월~2월	실행계획 수립	- 군포시 수소경제 활성화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연구모임 결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
2차	2023년 4월~5월	학술연구용역계획	- 연구모임 간담회를 통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내용 :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질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달성이 쉽지 않은 도전적 목표임 ·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3차	2023년 6월~8월	학술연구용역 추진	- 일정 : 2023년 6월 ~ 8월 중 - 인원 : 연구모임+학술연구용역연구원+수소관련 자 - 내용 : 군포시 수소산업활성화를 위한 조례 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 연구용역 추진
4차	2023년 9월~10월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홍보	- 일정 : 2023년 10월 11일 - 인원 : 연구모임+학술연구용역연구원+수소관련 자 - 내용 :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작성, 제출

Ⅱ 연구모임 활동

1 연구용역 활동 개요

❍ 군포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토론회

- 2022. 11.24.(목) 16:00~17:30 / 군포시 회의실
- 21명(의원 4, 한세대 4명, 서울대 2명, 관계공무원 4명, 업체 3명)
- 군포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서울대 교수 강상규)
- 군포시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경제 구축방안(뉴수소에너지 대표 김용우)

❍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 1회 : 2023. 04. 03.(월) 10:00시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실
  연구모임 구성 소개, 사업계획 설명 등 사전준비 논의
- 2회 : 2023. 05. 08.(월) 10:00시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실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용역 계획 논의
- 3회 : 2023. 05. 15.(월) 10:00시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실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 4회 : 2023. 06. 05.(월) 10:00시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등 학술연구용역 조직 및 연구원 확인
- 5회 : 2023. 07. 26.(수) 15:00시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군포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6회 : 2023. 09. 25.(월) 15:00시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023 지방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 부문)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일 자 : 2023. 06. 24.(토)
- 주 관 :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법률저널
- 내 용 : 군포시 수소산업활성화 연구모임, 정책연구부문(기초의회) 우수상
- 대 상 : 대표의원 박상현, 연구의원 이길호, 신경원, 이훈미

2 학술연구용역 활동

▣ 학술연구용역 검토회의(총 4회)

❏ 개 요

○ 기 간 : 2023. 06.07.(목) / 07.19.(수) / 08.10.(목) / 08.29.(화)

○ 장 소 :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 상 : 연구모임 의원 4명, 연구용역 연구원 5명, 관계자 3명 등 12명

○ 주요 안건 : 학술연구용역 관련 산출물(보고서) 검토

■ 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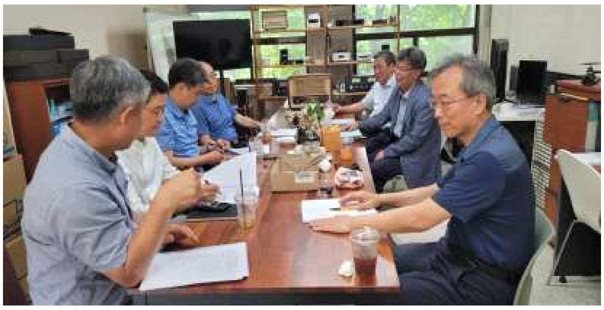
1) 분야별 연구책임자 지정, 연구계획(안) 작성

2) 주 1회 이상 분야별 토의 및 SNS를 통한 정보교류

3) 연구용역 기간 중 단톡방 개설 정보 소통 강화

3) 연구용역 관련 산출물 검토 및 수정보완 등

○ 사진자료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개 요

○ 기　간 : 2023. 07. 26.(수) 15:00 ~ 17:30

○ 장　소 :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 대　상 : 연구모임 의원 4명, 연구용역 연구원 5명, 관계자 3명 등 12명

○ 주요 안건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등 록	15:00 ~ 15:05	10′	▸ 참석자 등록 및 일정안내	사 회
개회식	15:05 ~ 15:10	04′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연구원 김용우
	15:10 ~ 15:20	10′	▸ 연구용역 진행사항 보고	연구원 김용우
중 간 보고회	15:20 ~ 15:50	30′	▸ 중간 보고서 발표	책임연구원 최광돈 책임연구원 강상규
	15:50 ~ 16:00	10′	▸ 질의 및 답변	책임연구원 최광돈 책임연구원 강상규
폐회식	16:00		▸ 폐회선언	사 회

○ 사진자료

▣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개 요

○ 기　간 : 2023. 09. 25.(월) 15:00 ~ 16:30

○ 장　소 :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 대　상 : 연구모임 의원 4명, 연구용역 연구원 5명, 관계자 3명 등 12명

○ 주요 안건 :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등 록	15:00 ~ 15:05	10′	‣ 참석자 등록 및 일정안내	사 회
개회식	15:05 ~ 15:10	04′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연구원 김용우
	15:10 ~ 15:20	10′	‣ 연구용역 진행사항 보고	연구원 김용우
최 종 보고회	15:20 ~ 15:50	30′	‣ 최종 보고서 발표	책임연구원 최광돈 책임연구원 강상규
	15:50 ~ 16:30	40′	‣ 질의 및 답변	책임연구원 최광돈 책임연구원 강상규
폐회식	16:30		‣ 폐회선언	사 회

○ 사진자료

3 학술연구용역 결과

◎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성과품

군포시의회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귀하

대표의원 박 상 현

연구의원 이 길 호

연구의원 신 경 원

연구의원 이 훈 미

본 보고서를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08.

주관기관	김 정 곤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과제책임	최 광 돈	한세대학교 교수
공동 과제책임	강 상 규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	김 용 우	㈜뉴수소에너지 대표이사
	이 왕 헌	한세대학교 교수
	안 중 현	㈜과천아이텍 대표이사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ㅇ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피해 확산
- ㅇ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하위권임
- ㅇ 군포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 필요
- ㅇ 군포시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필요
- ㅇ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탐색 및 도출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ㅇ 시간적 범위는 2023년도 기준 향후 2030년까지로 한정
- ㅇ 공간적 범위는 군포시 중심의 수도권 및 국내 · 외 수소산업
- ㅇ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의 논거 개발
- ㅇ 국내 · 외 수소산업 현황 및 군포시 수소산업 여건 및 위상
- ㅇ 군포시의 수소 R&D 특화도시 구현방안 탐색 및 로드맵
- ㅇ 군포시 수소산업 사업모델 탐색 및 정책과제 제시

□ 연구의 방법

- ㅇ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을 규명
- ㅇ 수소산업에 대한 정의와 수소에너지 특징, 국내외 수소에너지 산업동향 등을 기술
- ㅇ 사례연구를 통해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산학연 협력에 대한 유형 정리
- ㅇ 다른 지자체 규약과 관리규정 등의 사례 분석
- ㅇ 연구결과 분석 후 이를 기반으로 R&D 연구과제 도출
- ㅇ 사례별 비교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명제 도출 및 정책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

2. 수소경제의 현황

2.1 수소경제의 정의

□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란

ㅇ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 1.)

ㅇ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 고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별 경기회복 정책과 맞물려 수소경제 재조명

ㅇ 재생에너지는 근본적인 한계(간헐성, 경직성, 지역 간 편차)로 인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고, 저장과 수송이 용이하지 않아 수소 생산 에너지원으로 활용

2.2 국내 수소 에너지 정책 및 산업 동향

□ 국내 수소 에너지 주요정책

ㅇ 수소법 개정안 '22년 5월 국회 통과, 6월 정부 의결·공포되어 12월부터 시행

ㅇ 청정수소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원 다양화, 리딩 산업 육성 관점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

ㅇ 첫 수소 경제 정책방향 발표 내용:

①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②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

③수소 기술 미래 전략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 : 2030년 선진국 수준 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 수소기술 미래 전략 : 주요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 100%, 액화암모니아 기술 확보, 수소 모빌리티 시장 1위 공고화

3. 군포시 수소산업 위상

□ 군포시의 수소산업 위상

○ 군포시의 적극적인 산업혁신 의지 보유

○ 군포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센터 등 산업 특화지원 센터를 다수 운영하면서 군포시 관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도권 내 수소산업 관련 학교 및 기업의 중심위치에 입지하여 인재육성 특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접근성 양호

○ 수도권 내 수소 관련 대학 및 군포시 내 수소 모빌리티 전문업체를 연계하는 산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최적지

○ 수소산업 R&D 기술개발을 통하여 인근 수소도시에 관련 기술을 확산할 수 있는 수소산업 R&D 인재육성 거점으로 최적지

○ 군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수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흥, 안양, 화성 등 다수의 지자체와 인접해있어 교통의 중심지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영동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다수의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높음

4. 국내·외 수소도시 시사점

□ 국 내

ㅇ 국내는 수소전기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LNG 공급망(추출수소 생산 가능)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탄소배출 없는 수소도시’ 건설에는 여전히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한계점 존재

- (생산) ‘수소 도입’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탄소배출, 넷 제로 (net zero)’라는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 따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한계점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와 핵심전략을 구성해야 함

(환경) 초기에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으나, 중장기적으로 탈(脫)탄소 도시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린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선행해야 함

(경제) 경제성 확보 전까지는 수소도시 건설에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며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자립 가능한 수소도시 모델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함

(사회) 수소도시는 도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객관적·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

ㅇ 중장기적인 수소도시 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수소시범도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 수소도시 관련 법제화를 추진했다는 점은 고무적

□ 해 외

ㅇ 일본은 지난 20년간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도에 비해 도시규모로서 수소 도시 구현에는 못미침

* 현재 접근 가능한 수소생산(개질 및 수전해 기반 수소충전소), 저장(고압, 액화, 암모니아), 이용(연료전지자동차,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의 조합을 보급하기 위한 단계

ㅇ 미국은 일본의 프로그램들과 달리, 수소에너지 사회를 목표로 지향하기보다는 수소에너지 자체의 활용을 주 목표,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의 구현 시 요구되는 에너지 저장 및 이송 방법으로서 수소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ㅇ 유럽은 수소 및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30여년간 범국가적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상당 수준의 요소기술에 대한 높은 단계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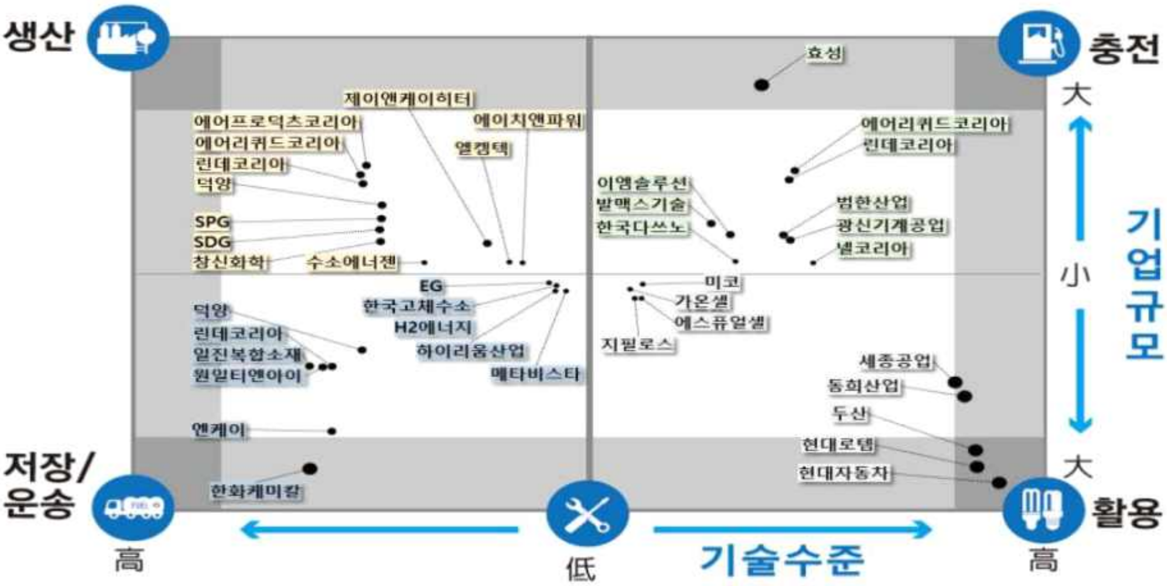
□ 수소산업 R&D 현황

ㅇ 수소산업 국내기업 활용분야와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형성이 부족함

- 수소산업 분야별 기업분포 결과(1,000개社)

분　야	활용	생산	충전	저장·운송
기업 분포(1,000개社)	69%	3%	6%	10%
수소산업 인력(15,006명)	85.6%	3.6%	8.1%	0.01%

ㅇ 국내 수소산업 주요기업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2020>

- 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 분야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용분야는 대기업 주도로 생태계 형성 중

- 기술수준 또한 대기업이 주도 중인 모빌리티 수소전기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부분에서만 높은 것으로 확인

ㅇ 수소산업 인력은 15,006명으로 전체 기업의 인력 중 약 3.17%, 수소분야 R&D 인력은 44.1%(6,619명)로 비중이 높은편이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며 수소산업분야에서 R&D 인력 부족률이 24.9%로 R&D인력 확충이 필요함

- 수소산업 발전에 따라 지자체별 계획 및 추진되고 있는 수소도시 내 수소산업 전주기 관련 수소산업 인재육성 및 미래 수소산업 R&D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수소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R&D 특화도시 구현방안 추진전략 필요

5. 군포시 수소산업 R&D 특화도시의 구현방안

5.1 군포시 수소산업 R&D 특화도시 당위성

□ 수소경제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주로 부생 수소(그레이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으로 고려되고 있고 중기적으로 해외 수소 공급선 확보 및 향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진행 중으로 대기업 위주의 산업으로 중소기업 진입이 제한적임

□ 수소 활성화 로드맵 발표된 시점에서 기반기술에 대한 R&D를 시작한 상황으로 수소활용분야 기술에 치우쳐 있어 수소 로드맵내 기술 혹은 공정 실증에 대한 R&D가 미흡하여 수소산업 R&D 분야 다양화 필요

○ 수소의 생산, 공급, 활용까지의 시스템적인 실증사업은 전무하나,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사업은 적용사례 있음

○ 우리나라의 전체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77.7%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9년, 연료전지가 3.0년으로 분석(KISTEP, 2014)

□ 산업부를 통해서 개별 기술에 대한 실증형 R&D 계획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제한된 기업 인프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미흡함

□ 군포시 현재의 산업구조는 수소산업 실현에 난제가 많기에 현재의 산업과 기술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획기적인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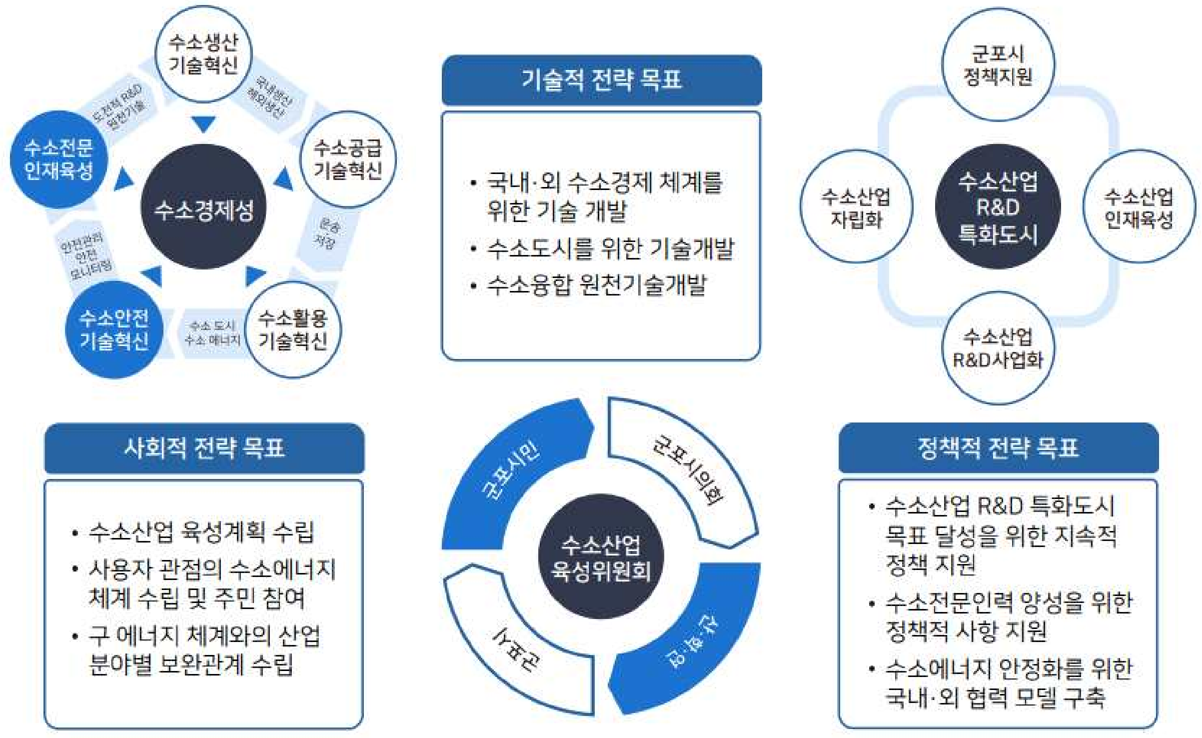
○ 지역내 기업간 교류를 통한 지식 및 혁신의 전파가 원활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낮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 창의적인 인력 등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

○ 수도권 내 수소산업 관련 학교 및 기업의 중심위치에 입지하여 R&D 인재육성 특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입지조건이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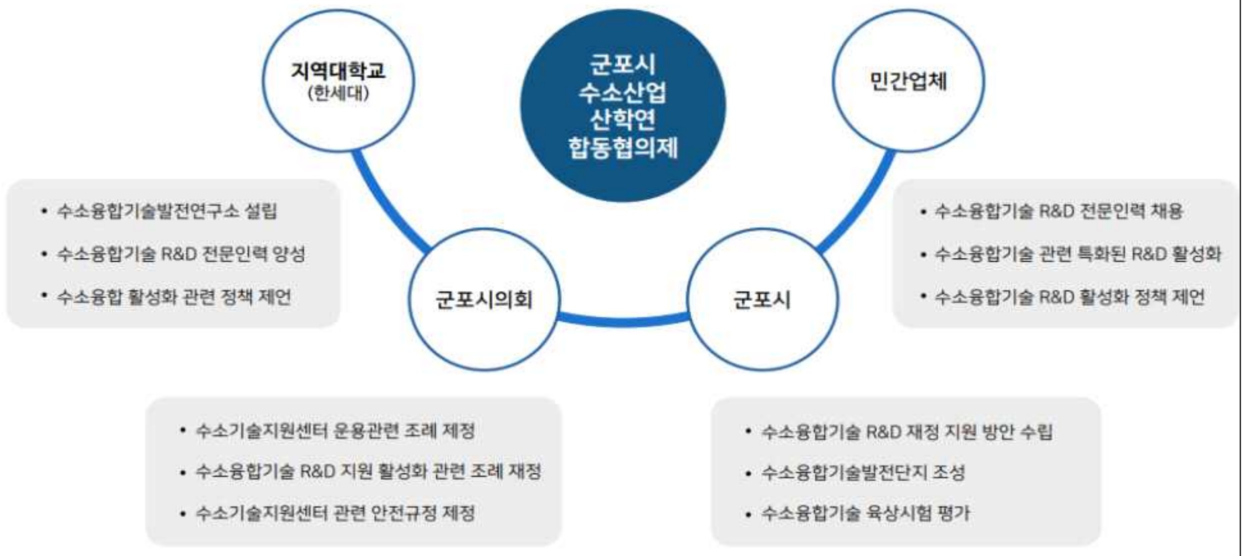
□ 수소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경제 전주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수소산업 R&D 특화도시」로 <u>군포시가 최적지임</u>

5.2 군포시 수소산업 R&D 사업화 추진전략 및 사업모델(안)

□ 추진전략 및 목표



□ 산학연합동협의체 구성 및 역할



□ 군포시 수소 활용 사업모델(안)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인근지역(SK 인천 석유화학 단지)의 연간 3만톤 액화수소 생산 계획 활용
- 철도를 이용한 액화수소 수송 가능(인천 석유단지⇔오봉역)
- 복합 물류센터, 관공서, 상업 및 공업 · 산업단지의 수요처 수소 공급

○ 사업 개념도

6. 맺음말

□ 현재의 지자체가 추진 중인 수소도시는 국제적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로 초기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을 향상하는데 부족하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원천기술 확보가 필수임

○ 현 산업 기술과 융합할 수 있고 기존 산업공정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

○ 수소의 세계 시장 선점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과 경쟁하는 분야로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함

□ 군포시의 경우,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매우 적은 도시로 수소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서의 위상은 매우 약한 편이나, 군포는 수도권 내 수소산업 관련 학교 및 기업의 중심위치에 있어 수소산업 R&D 인재육성 특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입지조건은 매우 양호함

○ 혁신적 수소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군포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입지로서 군포시 거점 활용

* 수소산업 인재의육성을 통한 혁신적인 수소 원천기술의 사업화 모델 실증 등 지속적인 상호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군포시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

□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군포시의회의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소산업과 국내·외 수소 시범도시의 사례를 분석으로 도출한 군포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R&D 특화도시 구축 조기 추진

○ 수소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 방안 확립

○ 선제적으로 수소산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혁신적인 신기술 및 수소산업 원천기술 기반 확충 및 R&D 사업화 활성화

□ 타 지자체의 기존 수소도시 인프라 구성의 기술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차별화한 혁신적인 신기술 및 수소 원천기술을 확충하여 이를 기반으로 내수진작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수소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임

Ⅲ	언론보도 등

[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군포시의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지능형 수소에너지시스템 연구실 강상규 교수와 ㈜뉴수소에너지 김용우 대표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군포시를 '수소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상규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영국 리즈시나 국내 수소시범도시(평택, 안산 등)처럼 군포시를 수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 제안했으며 김용우 대표는 "군포시는 수소융합기술 관련 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와 동시에 발전 방향을 확립·추진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성실·겸손의 군포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22. 11. 29.(화) 제공부서 : 의회사무과 담 당 자 : 나** 전 화 : 031-390-**** 사 진 : 있음(2매)

군포시의회, 수소경제의 미래 논의

수소경제 활성화 발전방안 토론회 최근 개최

“수소도시 조성 추진 시 최대한 지원할 것”

군포시의회에서 수소경제의 미래가 논의됐다.
시의회는 최근 ‘군포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현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지능형 수소에너지시스템 연구실 강상규 교수와 ㈜뉴수소에너지 김용우 대표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군포시를 ‘수소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강상규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영국 리즈시나 국내 수소 시범도시(평택, 안산 등)처럼 군포시를 수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용우 대표는 군포시는 수소융합기술 관련 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와 동시에 발전 방향을 확립·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을 전문가에게 듣는 기회를 마련, 지역에서 관련 담론이 형성되는 계기를 조성하려 했다”며 “이후 군포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지속가능 경영 기업이 증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길호 의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0%, 2040년에는 지자체의 30%를 수소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근래 밝혔다”며 “군포시가 수소경제로 새롭게 성장의 길을 모색한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군포시의회는 11월 24일 박상현 의원 주관으로 ‘군포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군포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토론회
| 일시 | 2022. 11. 24.(목) 16:00 | 장소 |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 주최 | 군포시의회 | 주관 | 박상현 의원

군포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토론회
| 일시 | 2022. 11. 24.(목) 16:00 | 장소 |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 주최 | 군포시의회 | 주관 | 박상현 의원

성실·겸손의 제9대 군포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23. 4. 3.(월) 제공부서 : 의회사무과 담 당 자 : 나** 전 화 : 031-390-**** 사 진 : 있음(2매)

군포시의회, 산본천 복원·동물복지·수소산업 연구

의원 연구단체 3개 운영 승인, 4월부터 연말까지 활동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시민 참여 산본천 복원방안, 변화한 시민의식에 맞춘 동물복지 방안이 담긴 조례·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의회는 최근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동한(대표)·신금자·이우천·이혜승 의원이 참여한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과 이혜승(대표)·신금자·이동한 의원이 함께하는 '군포시 동물복지포럼'의 활동계획서를 승인했다.

심사자료에 의하면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우선 시의원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모임을 구성·운영하며 다른 도시의 하천 복원 현장을 탐방하고, 가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 중심의 산본천 복원 방향을 마련한 후 집행부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군포시 동물복지포럼은 활동기간에 매월 유기 동물, 펫샵, 동물복지 인프라, 개 식용, 취약계층 반려동물,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동물보호 조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박상현(대표)·이길호·신경원·이훈미 의원이 공동으로 요청한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단체 운영 및 용역 발주 계획도 승인했다.

수소산업 연구단체 및 용역은 관련 조례의 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의 논거를 개발하고, 군포시 수소산업 환경을 분석하며, 수소 R&D 특화도시 구축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여론의 의정·시정 반영을 실현, 민주적·능률적 행정 시행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 : 군포시의회는 3월 31일 '2023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모임 3건의 시행을 승인했다.

2023년 제1차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2023년 제1차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 2023. 3. 31.(금) 10:00
장소 | 문화강좌실
주요내용 |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군포시의회

G.ECONOMY(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6월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3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에서 모두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을 통해 군포시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 수소산업 활성화 연구모임결성

▲ 관내 수소산업 분야 연구기관 협업단체 결성

▲ 전무가 초청 토론회 개최, 시민 침 관내업체 의견 수렵

▲ 관련분야 연구용역 추진 등의 정책연구활동 내용을 인정받았다.

출처 : G.ECONOMY 지이코노미(http://www.geconomy.co.kr)

[투데이에너지 윤서연 기자] “군포시가 수소 분야 연구개발 특화센터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인재 육성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길 제안한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개최된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수소산업 활성화 분야를 연구하기로 한 모임이 발주한 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용역은 최광돈 한세대학교 대학원 원장과 강상규 서울대학교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상현 의원은 “에너지 자립과 안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수소경제가 무척 중요한 상황에서 군포의 전략적 성장 촉진을 위해 도시 특색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높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성실·겸손의 제9대 군포시의회	보도 자료	제공일자 : 2023. 7. 28.(금) 제공부서 : 의회사무과 담 당 자 : 나** 전 화 : 031-390-**** 사 진 : 있음 (1매)	

군포시의회,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모색

‘수소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연구

“군포시가 수소 분야 연구개발 특화센터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인재 육성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길 제안한다. 군포시의회가 이를 견인했으면 좋겠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개최된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수소산업 활성화 분야를 연구하기로 한 모임(박상현(대표)·이길호·신경원·이훈미 의원)이 발주한 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용역은 한세대학교 대학원 최광돈 원장과 서울대학교 강상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구모임 대표 박상현 의원은 “에너지 자립과 안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수소경제가 무척 중요한 상황에서 군포의 전략적 성장 촉진을 위해 도시 특색에 맞는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높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3월 말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이동한(대표)·신금자·이우천·이혜승 의원)’, ‘군포시 동물복지포럼(이혜승(대표)·신금자·이동한 의원)’ 등 3개의 의원 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승인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7월 26일 개최된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현장

▣ 붙임 2

용역 집행 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①노무비	내부인건비	5,280,000	
	외부인건비	10,369,000	
②경비	회의비	561,100	
	사무용품비,연구환경유지비	494,800	
	인쇄비	1,195,000	
③순원가(①+②)		17,899,900	
④간접비		1,810,000	
⑤일반관리비		290,100	
⑥총 용역원가(③+④+⑤)		20,000,000	
⑦부가세		2,000,000	
총용역비(⑥+⑦)		22,000,000	

2023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집

■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군포시의회

목　　　차

▣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 1

Ⅰ. 연구배경, 목적 ---------- 5

Ⅱ. 연구모임 활동 ---------- 9

Ⅲ. 언론보도 등 ---------- 42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table>
<tr><td colspan="2">연 구 단 체 명</td><td colspan="2">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td></tr>
<tr><td rowspan="2">연구내용</td><td>연구주제</td><td colspan="2">군포시 지역특색에 맞는 산본천 복원방안 모색</td></tr>
<tr><td>연구목적</td><td colspan="2">군포시 지역특색과 환경요건에 맞고 시민욕구에
부합하는 산본천 복원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에 반영</td></tr>
<tr><td rowspan="5">연
구
활
동
비</td><td>총 액</td><td colspan="2">금 2,582,000 원 (용역비 + 세미나 등 개최비용)</td></tr>
<tr><td>집행액</td><td colspan="2">금 2,341,400 원</td></tr>
<tr><td>잔 액</td><td colspan="2">금 240,600 원</td></tr>
<tr><td rowspan="2">집행내역</td><td>연구용역</td><td></td></tr>
<tr><td>연구용역 외
연구활동비</td><td>금 이백삼십사만일천사백원 (₩ 2,341,400)</td></tr>
<tr><td colspan="2">활용실적(계획)</td><td colspan="2">산본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의견반영</td></tr>
</table>

붙 임 1.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집행 관련 증빙자료 1부.

2023년 11월 30일

제출인 : 대표의원 이 동 한 (인)

군포시의회 의장 귀하

▣ 붙임 1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2023. 11.

군포시의회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군포시의회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 참여의원 ▣

대표의원 이동한

연구의원 신금자, 이우천, 이혜승 의원

▣ 함께 하신 분 ▣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에코텍생태복원연구소장, 청주대 교수 김현규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이동진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이현재

일본 정원학회 이사 키쿠치 마사요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이사 임봉구

연구의원 소개

의 원		경 력
대표의원 이동한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부 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군포시체육회이사
연구의원 신금자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제9대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전) 군포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연구의원 이우천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제8대 군포시의회 의원 전) 군포YMCA 사무국장
연구의원 이혜승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군포시 노인복지문화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지역위원회 청년위원

Ⅰ 연구배경 및 목적

단 체 명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주제	군포시 지역특색에 맞는 산본천 복원방안 모색
연구활동기간	2023년 4월 1일 ~ 11월 30일(8개월)
구성의원	· 대표의원 : 이동한 · 연구의원 : 신금자, 이우천, 이혜승
연구목적	군포시 지역특색과 환경요건에 맞고 시민욕구에 부합하는 산본천 복원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에 반영
연구활동비 지원요구액	2,582,000원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서

- 대표의원 이동한 -

1. 연구기본 개요

○ 연구주제 : 군포시 지역 특색에 맞는 산본천 복원방안 모색

○ 운영기간 : 2023. 4. 1. ~ 11. 30.

○ 구성인원 : 군포시의원, 군포시민 및 관련 단체 등

2. 연구 활동 목표

○ 효과적인 생태하천 복원 방안을 모색한다.

○ 홍수조절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하천 복원 방안을 모색한다.

○ 시민 중심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한다.

○ 향후 사업진행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치수, 이수, 환경, 교통, 상권 등)을 찾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복원 후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3. 주요 연구 활동 방향

○ 복원 사업의 당위성 확보

- 산본신도시 개발연대 동안 하수구로 전락한 산본천 복원은 상실된 생태도시로서의 군포 이미지를 되살리고, 지난 수십년간 발전의 성과에 묻혀 잊혀졌던 자연친화적인 시민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
- 발전지상주의 콘크리트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개발연대를 마감하고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산본천 복원은 지나간 한 시대의 성과를 정리하고 성찰하는 차원 및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구축

- 산본천 복원은 도래하는 환경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도로 미래지향적 도시환경은 현재와는 다른 자연과 사회가 균형과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도시환경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와 같은 도시환경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안녕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본천 복원은 도심 내에서 자연과의 공존과 군포의 녹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출발점임.
- 군포는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자연환경과 자연물보다는 인간과 인공 건조물들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도시임. 따라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소되고 파괴된 자연 영역의 확대와 소생은 필수적이며 산본천 복원은 군포의 녹색화와 미래지향적 생태도시의 모습을 구성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임.
- 도시 내 자연과의 관계에서 녹지의 부족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보다 생태적이고 사회적·공공적인 복원을 통해 그 가치는 배가되고 바람직한 미래적 도시환경의 창출에 기여할 것임.

○ 시민중심의 복원사업 추진

- 현재 산본천 위는 ‘걷고 싶은 거리’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며 산본천 복원 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본천 복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 산본천 복원 사업이 가져다 줄 환경친화적인 결과들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함.
- GTX 금정역사, 산본재래시장, 대단위 금정역세권개발과 연계하는 시민중심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방안 모색 -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구성”**
- 산본천 복원의 성공 여부는 복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기제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산본천 복원 사업과 주변

지역의 개발·정비는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도보를 이용한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연구 방법

○ 군포시 산본천 복원 연구모임 결성

○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시민간담회

○ 연구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

○ 정례회 개최

○ 인근 지자체 하천 복원 현황 탐방 (청계천, 구파발천, 심곡천)

5. 세부 연구계획

1) 군포시 산본천 복원 연구모임 회의 개최

○ 일 시 : 2023년 4월 ~ 11월 예정(최소 2주마다)

○ 인 원 : 20명 내외

○ 내 용 : 시민 중심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중점 논의

2) 타 지자체 하천 복원 현장 탐방

○ 일 시 : 2023년 10월 예정

○ 인 원 : 20명 내외

○ 내 용 : 하천 복원 선진지역과 인근 지자체 등을 탐방하고 현황 수집

3)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3년 11월 예정

○ 인 원 : 50명 내외

○ 내 용 : 교통, 토지이용, 계획, 생태환경, 상권, 보행자 중심의 복원방안 강구

Ⅱ 연구모임 활동

▣ 산본천 통합하천 복원을 위한 사례지 탐방

❏ 개 요

❍ 일 시 : 2023. 10. 10.(화) 09:3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천 → 경기도 부천시 심곡천

❍ 인 원 : 27명 (시의원, 연구단체 회원, 공무원 등)

❍ 주요 내용 : 산본천 통합하천 복원을 위한 우수 사례지 구파발천, 심곡천 탐방을 통하여 산본천 복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자 함

❍ 탐방 내용

- 인솔자가 각 하천 설명 및 자료 제공
- 구파발천 하천네트워크 리더(은평구 주민자치회 회장) 해설
- 부천시 하천생태과 설명(심곡천 하천설명사) 및 자료 제공

❍ 관련 자료

○ 사진자료(구파발천)

○ 사진자료(심곡천)

▣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2023. 10. 27.(금) 16:00 ~ 18:00

❍ 장 소 :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 인 원 : 15명 (시의원, 연구단체 회원, 공무원 등)

❍ 주요 내용 : 산본천 통합하천 복원을 위한 군포시 관련부서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하여 산본천 복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건설과장 발표

1) 사업개요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일원(L=1.44km)
- 사업기간 2023년~2032년, 총사업비 1,916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 필요성 ⇨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연계사업 효과 극대화

2) 사업계획

- 보행교, 이벤트광장, 커뮤니티공간계획으로 **다양한 도심하천 활동 유도**
- 산본천과 함께 살아난 **시민의 활기** 넘치는 도시경관을 즐기는 산책로 계획
- 산본천 복원으로 열린 **수변문화공간** 조성 및 **생명의 생기** 넘치는 생태하천 복원계획
- 하천유지유량 확보 방안으로 깨끗하고 맑은 **생태하천** 조성
- 주변 **재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부지 확보로 교통 혼잡 최소화
- 협업네트워크 구축으로 산본천 복원사업의 의사결정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3) 사업의 기대효과

▸ 환경·물리적 효과

- 복개구간 철거 후 자연친화적인 하천 복원

- 도시 홍수저감으로 치수 안전성 확보
- 유지유량 확보 및 수질정화로 자연하천으로의 재생
- 단절된 생태계 연결 및 생태적 기능 복원

▶ 친수기대 효과

- 수변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민 정주환경 향상
- 생태체험 및 교육의 공간으로 하천기능 극대화
- 천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으로 여가활동공간 확보
- 하천 접근성 확보로 방문객의 편리성과 쾌적함 제공
- 오염원 유입 차단 및 하천관거 개선으로 수질오염 개선

▶ 사회·문화적 효과

- 하천경관의 복원을 통한 산본의 도시이미지 향상
- 열린문화공간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하천변 여가를 즐기는 도시민의 생활환경개선
- 역사·예술문화 특화거리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경제적 효과

- GTX 금정역 복합개발사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주거재정비 도시재생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특화된 공공 공간, 테마길 조성으로 도시브랜딩 창출
-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 명소화

▣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2023. 11. 14.(화) 19:00 ~ 20:40

❍ 장 소 :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 인 원 : 14명 (시의원, 연구단체 회원 등)

❍ 주요 내용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본천 복원하기」이동진 연구원 발표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하천사업 추진

- 치수안정성(침수재해위험지구)을 고려하여 통수단면 확보
- 군포 산본의 고유성을 갖는 자원 발굴 및 계획요소에 반영
-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를 산본의 정체성 확립 공간으로 활용
- 과거 문헌 및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산본천에 살던 생물 찾아 깃대종으로 활용

2) 옛 물길을 따라 유역차원 복원사업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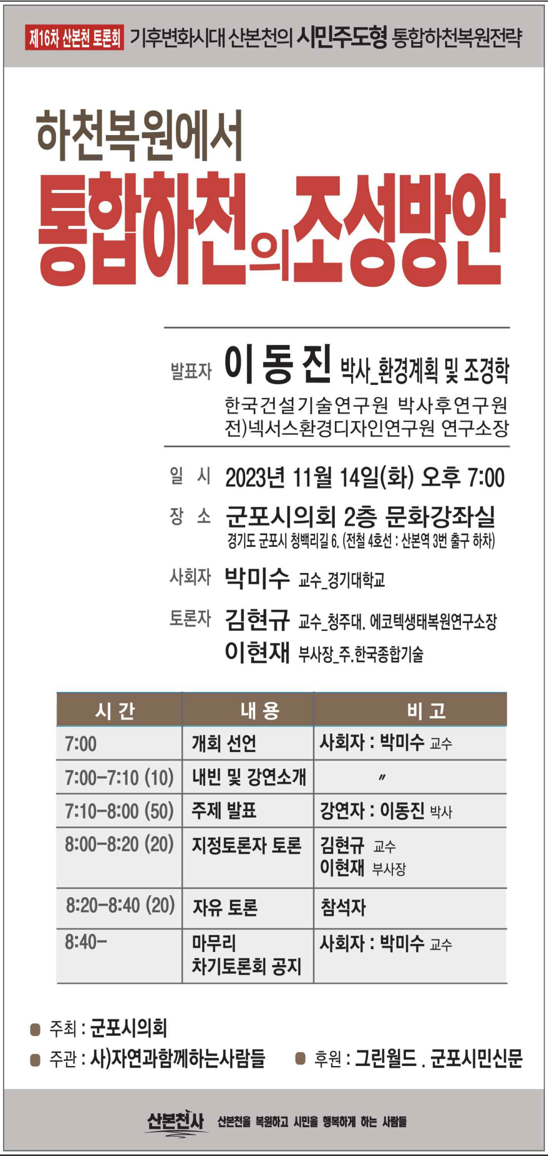
- 산본천 발원지인 초막골까지 하천복원사업 확대
- 산본 도심 내 물길 조성으로 물순환체계 구축 및 수공간 확대, 도시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 도모
- 산본천의 지류하천까지 확대하여 산본천의 연속성 확대, 강화(궁내초 계곡, 태을초 계곡 등)

3) 산본천의 주변축제 및 문화행사와 조화를 이루고 군포의 역사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군포 산본천 만의 스토리텔링 발굴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순환 및 활성화 체계 구축

ㅇ 사진자료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군포시의회
Gunpo City Council


제16차 산본천 토론회 기후변화시대 산본천의 시민주도형 통합하천복원전략
하천복원에서
통합하천의 조성방안
발표자 이동진 박사_환경계획 및 조경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연구소장
일 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7:00
장 소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전철 4호선 : 산본역 3번 출구 하차)
사회자 박미수 교수_경기대학교
토론자 김현규 교수_청주대. 에코텍생태복원연구소장
이현재 부사장_주.한국종합기술
시 간 | 내 용 | 비 고
7:00 | 개회 선언 | 사회자 : 박미수 교수
7:00–7:10 (10) | 내빈 및 강연소개 | 〃
7:10–8:00 (50) | 주제 발표 | 강연자 : 이동진 박사
8:00–8:20 (20) | 지정토론자 토론 | 김현규 교수 이현재 부사장
8:20–8:40 (20) | 자유 토론 | 참석자
8:40– | 마무리 차기토론회 공지 | 사회자 : 박미수 교수
주최 : 군포시의회
주관 : 사)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후원 : 그린월드 . 군포시민신문
산본천사 산본천을 복원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효과적인 산본천 복원방안 모색

▣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2023. 11. 28.(화) 19:00 ~ 20:30

❍ 장 소 :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 인 원 : 10명 (시의원, 연구단체 회원 등)

❍ 주요 내용 : 「군포시 산본천 통합하천조성 갈등관리 방향」정종관 박사 발표

1) 갈등완화 관리방향

- 통합하천 조성사업 관련 이해관계 영향정도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의 관심사항 파악
- 시민, 사업자, 행정기관(중앙, 지방),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나눠 사업시행의 갈등관리 방향 고찰
- 이해당사자의 참여구조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음
-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BATNA 적극 개선 노력

2) 협의형성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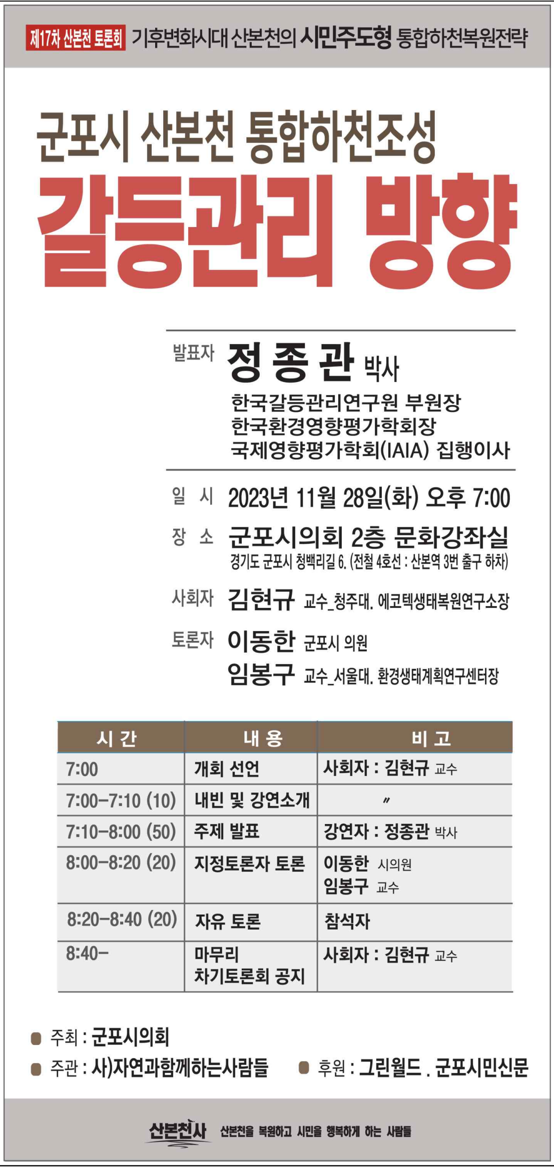
-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
- 서울시민공론화, 의정부 소각시설공론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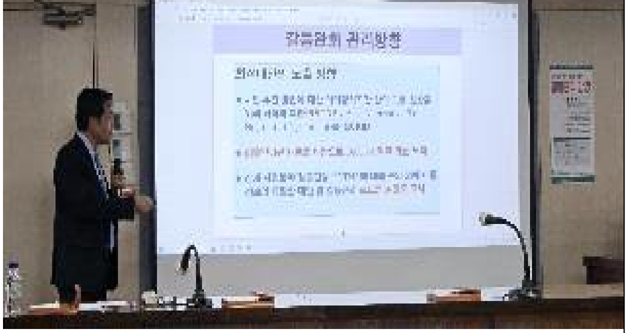
3) 협의형성 정책방향

- 사회, 경제, 환경 세가지 기준선 관점에서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군포시민 협의체 구성 운영
- 영향권 주민 민원제기 해소방안 마련
- 수용성을 고려한 대안(공간, 범위, 철거, 복원, 피해보상 등) 선정
- 합의형성회의 진행방식은 쌍방의 경청을 의미하는 EAR

○ 사진자료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효과적인 산본천 복원방안 모색
군포시의회
Gunpo City Council


제17차 산본천 토론회 기후변화시대 산본천의 시민주도형 통합하천복원전략
군포시 산본천 통합하천조성
갈등관리 방향
발표자 정 종 관 박사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집행이사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7:00
장 소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전철 4호선 : 산본역 3번 출구 하차)
사회자 김현규 교수_청주대. 에코텍생태복원연구소장
토론자 이동한 군포시 의원
임봉구 교수_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장
시 간 | 내 용 | 비 고
7:00 | 개회 선언 | 사회자 : 김현규 교수
7:00–7:10 (10) | 내빈 및 강연소개 | 〃
7:10–8:00 (50) | 주제 발표 | 강연자 : 정종관 박사
8:00–8:20 (20) | 지정토론자 토론 | 이동한 시의원 임봉구 교수
8:20–8:40 (20) | 자유 토론 | 참석자
8:40– | 마무리 차기토론회 공지 | 사회자 : 김현규 교수
주최 : 군포시의회
주관 : 사)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후원 : 그린월드 . 군포시민신문
산본천사 산본천을 복원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심포지엄

1 개 요

❍ 일 시 : 2023. 12. 12.(화) 17:00~19:30

❍ 장 소 :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 주최·주관 : 군포시의회

❍ 참 석 자

○ 시의원 : 이동한 의원(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신금자, 이우천, 이혜승 의원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의원)

이길호 의원(군포시의회 의장)

○ 국회의원 : 이학영 의원

○ 도의원 : 최효숙 의원, 정윤경 의원

○ 발제자

- 키쿠치 마사요시(일본 정원학회 이사/전 도쿄도 서부 공원 녹지 사무소장)
- 임봉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이사)

○ 토론자

- 이동진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현재 박사(주.한국종합기술)
- 이진복 교수(열린사회연구소)

○ 통역

- 김창회 박사(국립환경과학원)

○ 군포시 시민분들(약 30명_방명록 명단 참조)

2 심포지엄 순서

시간		주요내용	진행자	비고
16:00 ~	(min)	영상물 상영		
16:30 ~ 17:00	30	▶ Registration (등록)	사회자	
17:00 ~ 17:20	20	▶ Opening Ceremony(개회식)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환영사(이동한 의원) • 축사(이학영 국회의원) • 축사(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	사회자	기념 촬영
17:20 ~ 18:00	40	▶ Plenary Session 1 (주제 발표 1) • 키쿠치 마사요시(일본 정원학회 이사) • 도시재개발 및 도시하천재생과 관리운영 사례	사회자	
18:00 ~ 18:15	15	▶ Plenary Session 2 (주제 발표 2) • 임봉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이사) • 산본천 통합하천복원 방향 및 인접 도심 재개발 방안	사회자	
18:15 ~ 18:20	5	▶ Break(휴식)		
18:20 ~ 18:50	30	▶ General Discussion(토론) • 이동진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현재 박사(주.한국종합기술) • 이진복 교수(열린사회연구소) • 군포시민 질의응답	좌장	
18:50 ~		▶ Closing(폐회) / Reception(만찬)	사회자	

③ 발 제 1 : 키쿠치 마사요시(일본 정원학회 이사)

☐ 도쿄의 도시 재개발 사업 사례

1. 도쿄의 최근 도시 재개발 사업

日本橋川の再生整備事業後の将来像
니혼바시강의 재정비 사업 후의 장래상
日本橋　니혼바시
再開発ビルと開発後の水辺재개발 건물과 개발 후 물가

2. 하천의 재정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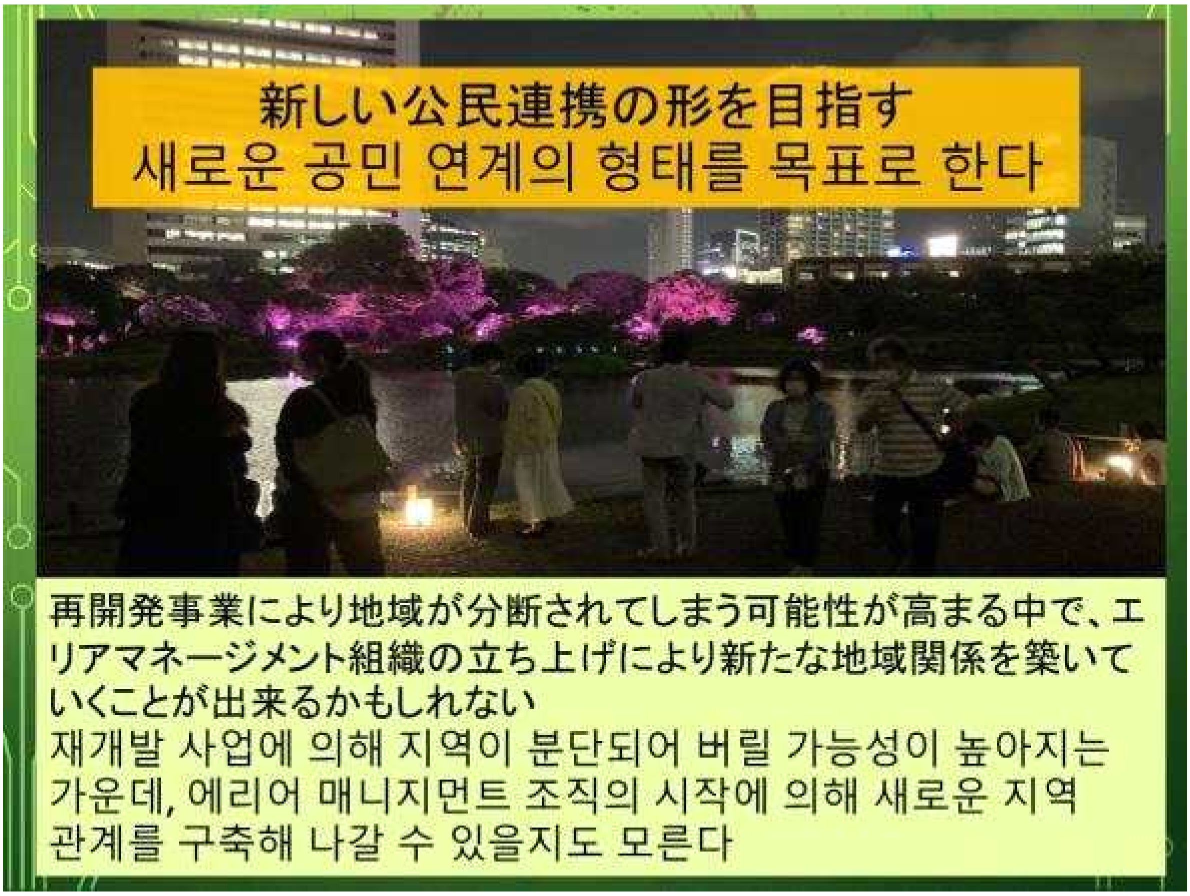
河川の再整備事業　하천의 재정비 사업
1996년에 나라의 하천 심의회로부터
「21세기의 사회를 전망한 향후의 하천
정비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의 의견이
나왔다.
그 답신 속에서 하천은 자연스러운
하천의 공간과 다양한 생물의 서식·생육
환경으로 진행해 나가는 생각이
되었다.그 후 도쿄도에서도 자연 환경을
배려한 하천 정비가 되었다.
位置図
石神井川
流域図
石神井川

コンクリート護岸を緩傾斜護岸に再整備
콘크리트 제방을 완만한 제방으로 재정비
整 備 前
整 備 後
① 練馬区南田中五丁目付近
コンクリート護岸と柵を改修して緩傾斜護岸に再整備

堤防の安全対策と旧河川と一体となった整備
제방의 안전 대책과 구 하천과 일체가 된정비
整 備 前
整 備 後
② 板橋区板橋四丁目付近
川の拡幅と掘削により治水安全度が向上
안전 대책을 위해 콘크리트제 제방에 정비했다. 그 후 벚꽃을 심었다..
整備後の事例
③ 北区豊島二丁目付近（あすか緑地）
④ 北区滝野川三丁目付近（音無もみじ緑地）
공원과 일체가 되어 완만한
제방으로 만들었다
구 하천 구역을 이용하여 생물이
살 수 있는 연못을 정비했다

3. 도시 재개발 사업에 둘러싸인 전통적인 일본정원의 유지 관리 에리어 매니지먼트

今年もライトアップイベントを実施
올해도 라이트업 이벤트 실시
旧芝離宮夜会
～かぜひかる～
~ 감기 히카루 ~
2023年5月24日～5月27日
2023년 5월 24일~5월 27일
庭園の歴史を伝えるとともに多くの若者に庭園の魅力を伝える
정원의 역사를 전하는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원의 매력을 전한다


新しい公民連携の形を目指す
새로운 공민 연계의 형태를 목표로 한다
再開発事業により地域が分断されてしまう可能性が高まる中で、エリアマネージメント組織の立ち上げにより新たな地域関係を築いていくことが出来るかもしれない
재개발 사업에 의해 지역이 분단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리어 매니지먼트 조직의 시작에 의해 새로운 지역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④ 발 제 2 : 임봉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이사)

□ 산본천 통합하천 복원과 도심개발 연계전략

1. 산본천과 신도시 개발

(자료 : 1957년 발행된 축적 1/150,000 토지이용도)

➢ 산본천(山本川) : 군포시를 흐르는 유로연장 5.0km, 유역면적 9.9km2의 지방하천.

➢ 군포시 산본동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합류함. 발원지인 산본동의 이름을 따서 산본천이라 함

- 산본동은 조선시대 과천군 남면 지역으로 수리산 밑이 되므로 산밑 또는 산본이라 함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궁안·도장골·둔전·광정·골안을 병합하고 산본리가 되어 시흥군 남면에 편입 됨
- 남면은 1979년 군포읍이 되었다가 시로 승격하면서 산본동이 됨.

(자료 : 한국하천지명사전(2011.12), 국토해양부)

➢ 1기 산본신도시의 조성

- 수도권 5개 신도시 조성
- 주택 200만호 건설
- 5개년 사업(1988년~1992년)
- 17만명 수용하는 4만2천호 개발

➢ 5개 신도시 중 4개 신도시는 하천 및 호수를 도시개발의 중심 하천축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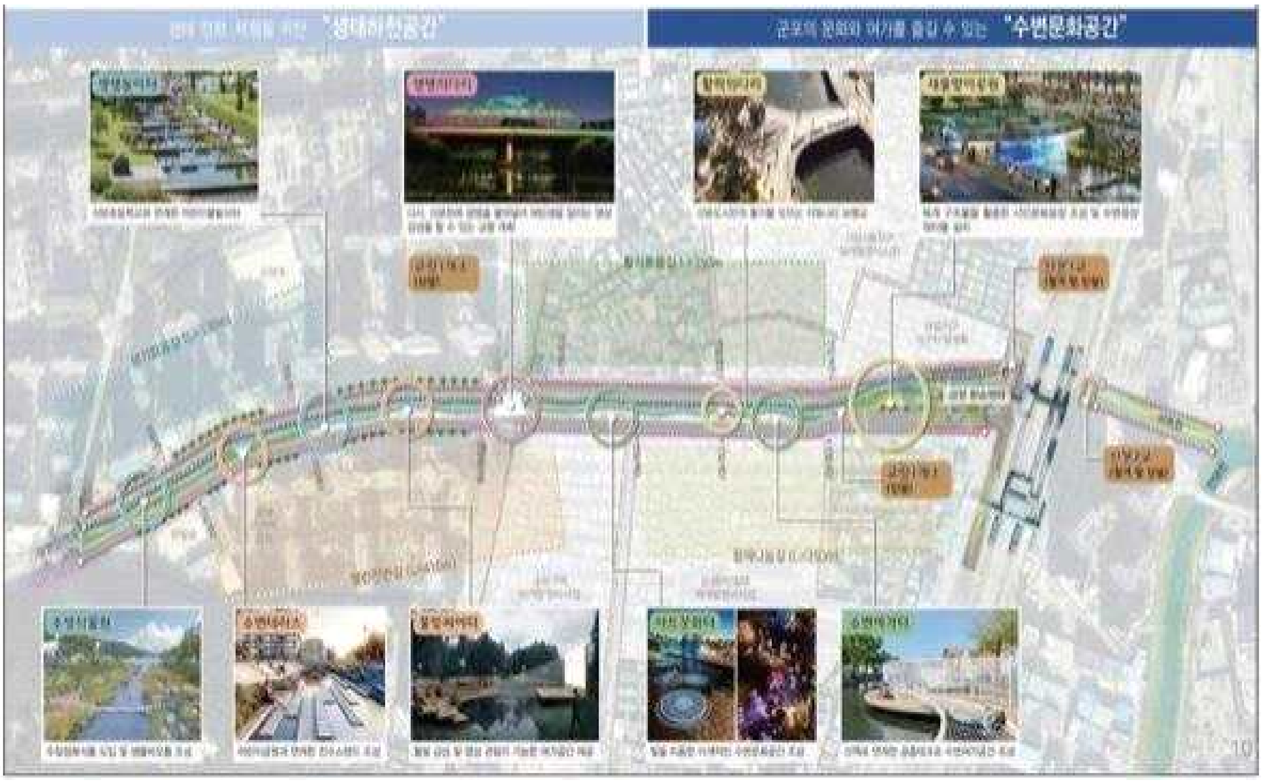
- 분당 신도시 : 탄천
- 일산 신도시 : 호수공원, 대화천, 도촌천
- 평촌 신도시 : 학의천, 안양천
- 중동 신도시 : 굴포천, 상동호수공원
- 산본 신도시 : 산본천 복개

➢ 전철의 지상화로 토지이용 단절

2. 산본천의 통합하천 제안

◆ 홍수에 적합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
-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개선사업, 수생태보전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 추진



3. 산본천 통합하천 복원방향

◆ 산본천 시민관리운영의 물환경관 조성

(자료 : 일본 후쿠오카 키타큐슈 시 Murasaki River 물환경관<박물관, 고쿠라성 인근> 사진.(.2016.12.24일 촬영)

◆ 시민이 주체 및 시민주도형 참여 river project.

산본천복원 통합하천 추진을 위한 시민운동의
가칭 "산본천사" 산본천을 복원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발족 및 참여운동 전개

4. 산본천 복원과 도심개발 연계전략

- 장기계획으로 미래세대가 이용할 하천복원사업
-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조성되어야 함
-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함
- 재해에 안전한 하천복원사업이 되어야 함
- 산본천 복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됨
- 생태계가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한 힐링하천이 되어야 함

- 산본천 통합하천 조성은 향후 10년 후 완공의 장기적 과제
- 주변 도시(재)개발과 연계된 미래 도시비전 함축
- 1기신도시의 폐해를 재 정립 할 기회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 교통의 결절지
- 유동인구의 휴식, 힐링 중심역할
- 첨단 산업 서비스 중심지
-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
- 힐링 케어산업의 중심지

- ◆ 유역권 개발로 도시의 재해예방에 대처
- ◆ 지하저류조 개발하여 유지용수 공급
- ◆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통합하천조성

◆ 군포시->인근도시 ->교통생활권 도시

5 토론자 1 : 이동진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하천사업 추진

○ 산본천은 산본시장, 금정역 주변 구도심, 아파트단지 등을 가로지르고 있는 도심 복개하천입니다. 복개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기에는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본천 하류지역은 침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산본천에는 오수가 유입되고 있어 수질이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합하천사업 추진시 오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로를 정비하고 깨끗하고 충분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 공급하여야 합니다. 수질이 확보되어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 · 관 ·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민은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 아닌 참여의 대상입니다. 산본천은 군포산본 지역의 공공재산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주체는 시민들입니다.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산본천 협의체를 구성,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틀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소통창구가 마련된다면 시민들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호응할 것입니다.

2. 옛 물길을 따라 유역차원의 복원사업으로 확대 추진

○ 과거 문헌 및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산본천의 옛 모습을 찾아야 하며 산본천에 살던 생물을 찾아 깃대종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깃대종이라 함은 어떤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 · 식물입니다. 산본천 생태계복원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깃대종을 선정함으로써 깃대종을 보전, 복원하기 위한 목표 및 복원방법 등이 강구될 것이며, 같이 서식할 수 있는 다른 생물의 서식처도 함께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본천 발원지인 초막골까지 하천복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합니다. 산본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산본천 하류에 해당하는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뿐만 아니라 발원지인 초막골부터 중류지역인 이마트사거리까지도 향후에는 복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합니다. 군포 산본지역은 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산림과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곳곳에 계곡과 실개천, 둠병이 존재하여 가재, 붕어, 미꾸라지 등을 잡고 놀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산본천은 복개가 되었고 산본천과 연결되었던 계곡, 실개천 등은 모두 덮어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포 산본지역에는 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본천의 지류하천(궁내초 계곡, 태을초 계곡 등)까지 확대하여 산본천의 연속성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군포 산본 내 물길을 복원하고 투수층 증대시킴으로써 도시 내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고 수공간을 확대, 수생태계를 복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시대에 군포 산본의 도시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지역의 환경복원, 창출의 우수 사례지로 남게 될 것이며, 시민들이 군포 산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축제와의 연계 등을 통한 군포 산본의 문화공간으로 조성

○ 산본천만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군포 산본의 고유성을 갖는 자원을 발굴하고 복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군포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산본시장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산본천을 군포 산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6 토론자 2 : 이현재 박사(주.한국종합기술)

○ 기쿠치 마사요시씨의 발표내용 중 니혼바시가와의 재정비사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하천변 경관을 향상시킨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천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 개량은 물론 하천 주변의 교통 대책, 토지수용, 도시 개발 등의 여러 부문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하천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하천을 정비 혹은 산본천처럼 복개된 하천을 오픈하여 하천의 기능을 복원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발생할 때의 홍수량을 하류로 하천 내에 아무런 피해를 발생하지 않고서 원만하게 배제할 수 있는 하천 단면이 확보되어서 하천 주변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하천 공간 내에서 서식할 수 있는 자연 생물들의 서식공간이 잘 마련되고 육상 생태계와 잘 연결되어서 물질 순환 및 에너지 흐름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건전한 하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고, 끝으로 하천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하천 공간에서 자연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 혹은 물놀이 등의 친수 활동을 통하여 자연이 베푸는 각종 생태계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친수 활동에 대해서 코멘트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친수 활동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는 길 즉 하도 내에는 깨끗하고 경관, 생태, 레크레이션, 수질 등을 고려한 어느 정도의 풍부한 물이 흘러야 합니다. 먼저 깨끗한 물의 확보는 더러운 오염물질이나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오수를 분류하고, 오수관의 누수 혹은 오접은 관거의 개량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수질이 확보될

것이나, 풍부한 물의 확보는 도시화로 인해 하천이 마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물의 확보 방법은 다양하지만 최적 안의 선택은 기능성,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들의 생각도 고려하는 사회성도 감안하여 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물의 확보 방법의 안(案)으로는 우기 시에 많은 물을 댐을 만들어 저장했다가 비우기 시에 흘러내려보내는 방법이 있겠고, 주변 개발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 타 지역에서 상수도의 원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방법, 혹은 하수도의 처리수를 고도처리하여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파괴된 지하수맥을 복원하여 지하수를 충진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하류에서 펌핑하여 순환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니혼바시가와의 경우에 재정비 사업하기 전에 하천 수질 상태는 어떠하였고 만약에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게되었는 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수량 역시도 사업 전과 후에 달라졌는지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각종 생물들의 재정비 전후의 변화는 어떠하였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7 토론자 3 : 이진복 교수(열린사회연구소)

1. 산본천 복원에 대한 문화적 요소

○ 산본천(山本川)의 명칭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산본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고 산본지역이 발전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개천의 이름을 정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지명(地名)은 특정 지역을 구별하고 인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붙힌 명칭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 전통과 풍속, 연희와 물산 등의 실정이 진하게 베어있다. 그러므로 지명은 작게는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국가까지 걸치는 가장 큰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지명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계천의 명칭도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는 그냥 도성 내의 개천이었다.)
내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본(山本)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1871년(152년전) 경기읍지 과천현읍지급사례대개책(경기읍지 제6책 과천현 읍지, 남면 규장각소장본, 1871년)에서 처음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82년 전인 1789년 호구총수 과천현(1789년 제2책)에는 남면에 "금정리, 당리, 봉성리, 당정리, 장천리(章千里), 산저리(山底里), 부곡리" 로 되어 있다. 즉 1871년경 남면 산저리에서 남면 산본으로 처음 명칭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14년 일제 식민지시대 조선의 지역을 조사한 "조선지지자료" 에 의하면 산본동(산밋)과 산본천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산본천의 명칭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시흥군지(1988년)에도 산본천(28㎞)의 명칭은 등장하고 있다.
산본의 원래 명칭은 순수한 한국말로 산밋(한자지명으로는 일반적으로 산저리)이며 이곳을 지나는 개천이 일제 식민지시대 산본천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89년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산본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만들고 산본 신도시를 조성한 것이다. 이것을 이번(2023) 통합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산본천(하천연장은 3.25km, 유로연장 4.95km) 일부구간(1.44㎞) 군포천과 안양천으로 합류되는 하류지역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의 제일 지류인 안양천과 달리 산본천은 군포천(1679년 명칭이 처음 등장, 정조의 원행)과 연관시켜도 문화적 요소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안양천의 명칭은 속달동에 정난종 정광보 정광필의 묘가 형성되고 정광보의 아들 호음 정사룡(1491-1570 대제학)이 지은 <<호음잡고>>에 조상의 묘역을 오면서 기록한 내용에 안양천이 등장하고 있으며, 정조의 원행에서 등장하는 만안교 역시 안양천에 있다. 반면 산본천에 대한 내용은 지명이외에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산본의 명칭이 원래 산밋(산저리:산 아래, 즉 수리산 아래)이고, 그 산은 한남정맥의 명산인 수리산과 수리산 자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본천의 복원에 대한 문화적 요인은 수리산과 수리산 자락과 연관된 문화적 요인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즉 복원구간 이외에 초막골생태공원 지역 등)

8 토론회 주요 도출 사항

◉ **본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들에 대하여 군포시청에서 수립중인「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에 반영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① 발제 1 : 키쿠치 마사요시(일본 정원학회 이사/전 도쿄도 서부 공원 녹지 사무소장)

○ 니혼바시강의 재정비 사업처럼

○ 향후 산본천 개수시 계획하폭 만큼 하폭을 확보해야 하며, 콘크리트 제방의 비탈경사를 직립식 옹벽 형태가 아닌 적어도 1:1의 완만한 경사로 재정비 필요

○ 또한, 하도내 여울과 소를 배치하여 수생 식물이 살 수 있는 수생태 환경 조성 필요

○ 산복천 복원 사업 완료후 라이트업 이벤트 등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축제를 시행하여 지역과의 관계 강화 필요

② 발제 2 : 임봉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이사)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하천기본계획 설계 시 보행자 산책로·자전거도로 등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기능 강화 필요

○ 개별사업 개발에서 복합지구로 종합개발 방식이 필요하며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 필요

- 용적율 인센티브 제도
- 용적율 이전제도
- 노후 도시계획 특별법 제정 등

③ 토론자 1 : 이동진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산본천 하류지역(금정역 인근)은 침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현재 산본천에는 오수가 유입되고 있어 수질이 매우 불량한 상태임

따라서 통합하천사업 추진시 오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로를 정비하고 깨끗하고 충분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 공급 필요

○ 산본천만의 스토리텔링 발굴을 위하여 용역 발주 필요

④ 토론자 2 : 이현재 박사(주.한국종합기술)

○ 하천기본계획 설계시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발생할 시 홍수량을 원만하게 배제할 수 있는 하천 단면 확보 필요

○ 홍수시 유속(2 ~ 3m/s)을 감안하여 하천 공간 내에서 서식할 수 있는 식재 식물 선정 필요

○ 산본천은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우기 시에 많은 물을 댐을 만들어 저장했다가 비우기 시에 흘러 내려보내는 방법

○ 주변 개발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 타 지역에서 상수도의 원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방법, 혹은 하수도의 처리수를 고도처리하여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파괴된 지하수맥을 복원하여 지하수를 충진하여 활용하는 방법,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하류에서 펌핑하여 순환하는 방법 등

○ 산본천에 적합한 유지용수 확보방안 제시 필요

⑤ 토론자 3 : 이진복 교수(열린사회연구소)

○ 산본천을 복원할 때 단지 치수공간 통합하천관리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산본, 산밋, 산저리, 수리산, 수리산 자락 등의 문화사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여 복원 필요

⑥ 기타 주민 의견

○ 산본천 홍수방어 대책 중 중앙공원을 저류지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실효성 여부 검토 필요

○ 산본천 복원으로 기존 아이들의 놀이터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하천생태복원 분야도 고려하여 산본천의 복원 방향을 제시하기 바람

○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산본천 복원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제도화 필요

◉ 심포지엄 현장사진

발표 1 키쿠치 마사요시(일본 정원학회 이사)

발표 2 임봉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이사)

토론회 참석자 전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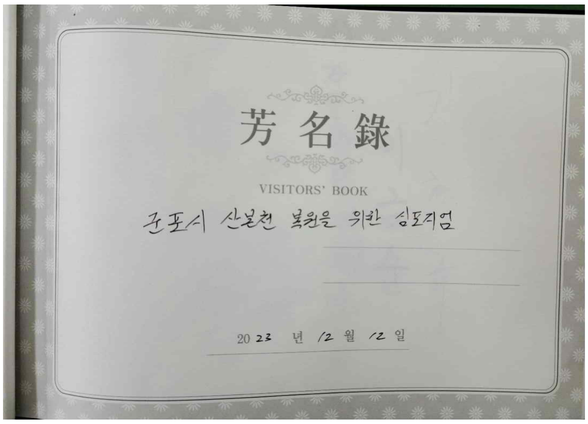
토론 1 이동진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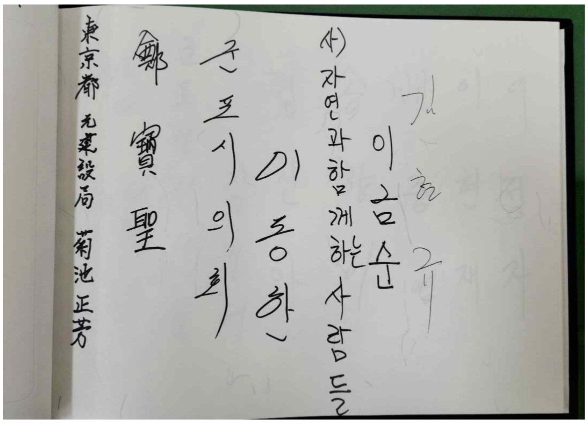
토론 2 이현재 박사(주.한국종합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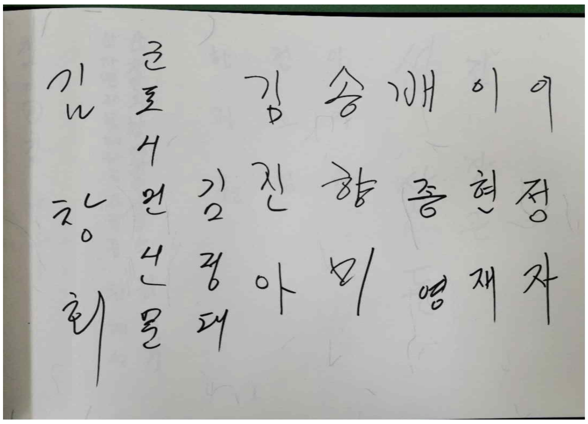
토론 3 이진복 교수(열린사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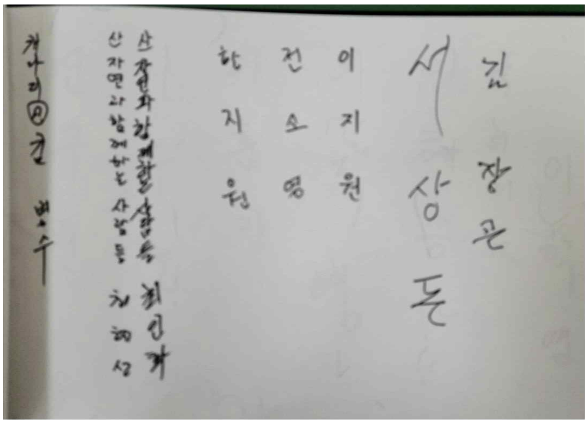
사회 김현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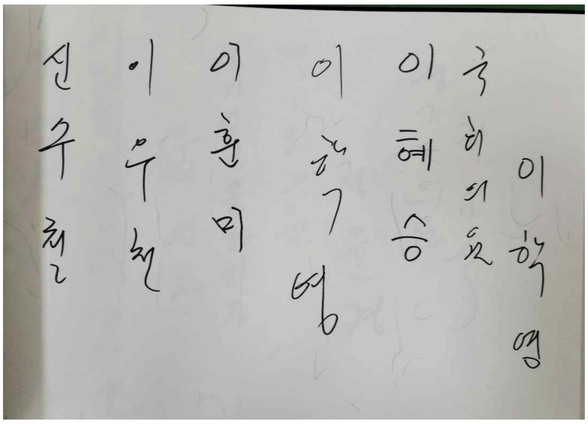
◉ 방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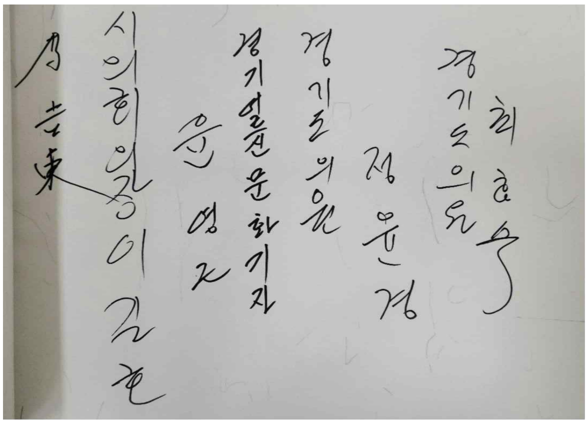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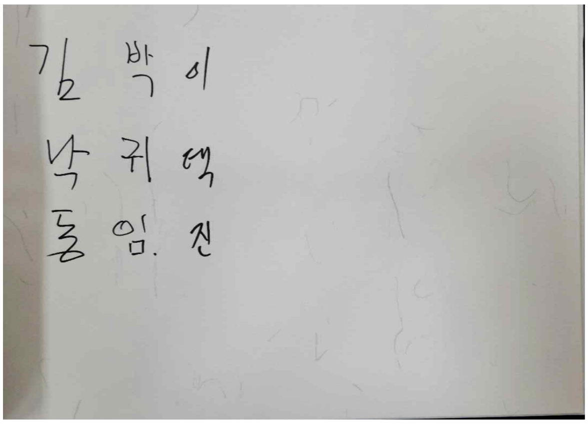












Ⅲ	언론보도 등

성실·겸손의 제9대 군포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23. 4. 3.(월) 제공부서 : 의회사무과 담 당 자 : 나** 전 화 : 031-390-**** 사 진 : 있음(2매)

군포시의회, 산본천 복원·동물복지·수소산업 연구

의원 연구단체 3개 운영 승인, 4월부터 연말까지 활동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시민 참여 산본천 복원방안, 변화한 시민의식에 맞춘 동물복지 방안이 담긴 조례·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의회는 최근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동한(대표)·신금자·이우천·이혜승 의원이 참여한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과 이혜승(대표)·신금자·이동한 의원이 함께하는 '군포시 동물복지포럼'의 활동계획서를 승인했다.

심사자료에 의하면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우선 시의원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모임을 구성·운영하며 다른 도시의 하천 복원 현장을 탐방하고, 가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 중심의 산본천 복원 방향을 마련한 후 집행부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군포시 동물복지포럼은 활동기간에 매월 유기 동물, 펫샵, 동물복지 인프라, 개 식용, 취약계층 반려동물,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동물보호 조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박상현(대표)·이길호·신경원·이훈미 의원이 공동으로 요청한 '군포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단체 운영 및 용역 발주 계획도 승인했다.

수소산업 연구단체 및 용역은 관련 조례의 입법 및 거버넌스 확립의 논거를 개발하고, 군포시 수소산업 환경을 분석하며, 수소 R&D 특화도시 구축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여론의 의정·시정 반영을 실현, 민주적·능률적 행정 시행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 : 군포시의회는 3월 31일 '2023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모임 3건의 시행을 승인했다.

2023년 제1차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2023년 제1차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 2023. 3. 31.(금) 10:00
장소 | 문화강좌실
주요내용 |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군포시의회

산본천 복원을 위한 구파발천, 심곡천 답사기

군포시의회 산본천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고희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0/16 [21:53]

‘군포시의회 산본천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0월 10일 산본천 복원 모델 탐구를 위해 서울의 구파발천과 경기 부천의 심곡천을 찾았다.

이날 답사에 이동한 군포시의원과 사)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회원, 산본천 복원에 관심 있는 시민과 학자 등 20 여명이 하루 종일 함께했다.

구파발천은 민간협치, 심곡천은 행정주도로 생태하천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오전에 방문한 구파발천은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매립하지 않고 생태하천으로 살렸다. 답사에서는 김병무 은평구주민참여위원장이 해설사로 나서 설명했다.

▲ 김병무 은평구주민참여위원장이 구파발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희정)
© 군포시민신문

그는 "주변 환경이 깨끗한 이유는 60여명의 구파발천 활동가 모임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4시간씩 청소와 관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천 관리를 주민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파발천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하며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고 있다. 은평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2006년 10월부터 하천 복원공사에 착수하여 은평뉴타운 완공과 함께 복원됐다. 하천 중류에 저류지 습지가 조성되어있다.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하여 구파발천 하류에 위치한 유수지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저수지로 공급하고 있다.

문헌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물장군이 보고됐고 국가적색목록의 준위협종인 참다슬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서울시 보호종인 무당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박새를 비롯한 다양한 종이 발견되는데 이는 구파발천의 하천주변의 자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심곡천 하류 (사진=고희정) ©군포시민신문

오후에 찾은 심곡천은 해설사가 나서 설명했다. 1km 생태하천으로 2014년에서 17년까지 복원했다. 하루 이용객은 평일 2백~3백명이며, 주말에는 3백~4백명이다. 관리예산은 연간 6.1억원이다. 하천 복원이후 전무했던 식물이 67과 231종이 발견됐으며 다수의 조류가 돌아왔다.

해설사는 "다양한 수변정화식물로 하류의 수질이 더 좋다"며 "복원 후 상권이 좋아지고 지역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 심곡천 물고기 아파트 (사진=고희정) ©군포시민신문

답사에 함께한 송향미 사)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활동가는 "심곡천은 산본천도 이렇게 복원하면 좋을것 같은 모습이었고 특히 바닥에는 자연하천으로 흙과 모래를 그대로 유지하며 공사했다는 것이 제일 인상 깊었다"며 "산본천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현재 (주)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구파발천은 하류의 유수지에 모인 자연수를 건천 일때 상류로 강제 펌핑하여 하천에 물을 흘러 보내는 형식이고 심곡천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방류한물을 재처리 하여 II급수로 하천 상류에서 방류하여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용수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산본천의 경우에도 구파발천처럼 유수지의 자연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유수지를 초막골의 기존 유수지를 확대 혹은 계곡수를 저류 혹은 소규모의 지하댐 조성, 고속도로 터널사업에 의해 붕괴된 지하수맥의 복원 등의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여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5천원 이상의 자동이체 후원은 군포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 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아래의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월 자동이체(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113MW0S32Vr2f

* 후원계좌 : 농협 301-0163-7925-91 주식회사 시민미디어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실·겸손의 제9대 군포시의회	보도 자료	제공일자 : 2023. 12. 13.(수) 제공부서 : 의회사무과 담 당 자 : 나** 전 화 : 031-390-**** 사 진 : 있음(1매)	

군포시의회, 특색 살리는 산본천 복원법 찾기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전문가 초빙 심포지엄 주최
“콘크리트 안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 기대”

군포시의회가 지역 특색에 맞는 산본천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의원들(이동한·신금자·이우천·이혜승)이 구성한 ‘산본천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주최 심포지엄은 이학영 국회의원과 정윤경·최효숙 경기도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오후 5시부터 군포시청 별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키쿠치 마사요시 일본 정원학회 이사(전 도쿄도 서부 공원 녹지 사무소장)가 도쿄의 도시 재개발 사업 시 하천의 재정비 사례를 소개하는 주제 발표로 심포지엄의 문을 열었다.

또 임봉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이사는 산본천 통합하천 복원과 도심 개발 연계 전략을 발표했고, 이어서 이동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원 등 전문가 3인이 주제 발표 내용과 관련해 심층 토론을 펼쳤으며, 참석 시민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집중 호우를 대비한 지하 배수로 설치, 오수 유입 차단 관로 정비, 민·관·전문가 협의체 구성, 산본천 깃대종 생물 발굴·복원, 친수공간 활성화, 역사·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정체성 확립 등의 제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동한 산본천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인 산본천 복원은 도심 친수·여가공간 확보, 경제적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연구모임 활동으로 취합한 시민의 바람과 전문가 의견이 시 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산본천 복원은 하천의 치수 안정, 여가 강화,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 열쇠가 잘 만들어지게 군포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활동한 산본천 복원 연구모임은 최근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17회의 간담회를 운영했고, 서울의 구파발천과 경기 부천의 심곡천을 탐방하는 등 ‘시민에게 가장 좋은 산본천 복원 방안’을 찾으려 노력해 왔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사진: 군포시의회가 개최한 산본천 복원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

▣ 붙임 2

(단위 : 원)

월 일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2,341,400	
2023. 9. 26.	연구모임 간담회 급식비	146,000	
2023. 10. 10.	강사수당 : 100,000원×1명 현장탐방 급식비 : 273,000원 현장탐방 음료비 : 20,000원	393,000	
2023. 10. 27.	연구모임 간담회 급식비	103,000	
2023. 11. 28.	발제수당 : 100,000원×1명 연구모임 간담회 급식비 : 83,400원	183,400	
2023. 12. 12	강사수당(3인) : 500,000원×1명 350,000원×1명 200,000원×1명 현수막 및 베너 : 66,000원 심포지엄 급식비 : 400,000원	1,516,000	

2023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집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군포시의회

목 차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결과 보고서

Ⅰ. 의원연구단체 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 1

Ⅱ. 연구단체 활동 ---------------- 4

Ⅲ. 언론보도 자료 ---------------- 28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table>
<tr><td colspan="2">연 구 단 체 명</td><td colspan="2">군포시 동물복지포럼</td></tr>
<tr><td rowspan="2">연구내용</td><td>연구주제</td><td colspan="2">군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td></tr>
<tr><td>연구목적</td><td colspan="2">○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등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동물보호 및 복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연구 진행하고자 함</td></tr>
<tr><td rowspan="5">연 구 활 동 비</td><td>총액</td><td colspan="2">금 2,715,000원</td></tr>
<tr><td>집행액</td><td colspan="2">금 2,188,300원</td></tr>
<tr><td>잔 액</td><td colspan="2">금 526,700원</td></tr>
<tr><td rowspan="2">집행내역</td><td>연구용역</td><td>-</td></tr>
<tr><td>연구용역 외 연구활동비</td><td>-</td></tr>
<tr><td colspan="2">활용실적(계획)</td><td colspan="2">정책개발 및 조례 제·개정시 참고</td></tr>
</table>

붙 임 1.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집행 관련 증빙자료 1부.

2023년 11월 30일

제출인 : 대표의원 이혜승 (인)

군포시의회 의장 귀하

▣ 붙임 1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2023. 11.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 참여의원 ▣

대표의원 이혜승

연구의원 신금자

연구의원 이동한

▣ 함께 하신 분 ▣

○ 데일리벳 이학범 대표

○ 김하연 작가

○ 동물자유연대 부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 등 다수

연구의원 소개

의 원		경 력
대표의원 이혜승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군포시 노인복지문화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지역위원회 청년위원
연구의원 신금자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제9대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전) 제8대 군포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 군포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연구의원 이동한		현)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부 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거복지특별 위원회 위원장 전) 군포시체육회이사 전) 대한민국합기도협회 회장 전) 대림대학교 의전경호학과 강사

Ⅰ 의원연구단체 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단 체 명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주제	군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연구활동기간	2023. 3. 1.~ 11. 30.
구성의원	대표의원 : 이혜승 연구의원 : 신금자, 이동한
연구목적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등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동물보호 및 복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연구 진행하고자 함
연구활동비 지원액	2,715,000원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이혜승 대표의원-

□ 연구단체 개요

1. 연구단체 설립목적

비인간인 동물에 대한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 도덕적 당위의 문제로써 종 차별에 대한 금지와 생명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시대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동물복지와 사람복지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서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 연구분야

동물권, 동물복지

3. 연구내용

가. 새로운 동물보호 조례
- 새로운 동물보호조례 제고를 위한 과제 도출 및 정책토론 및 법안 발의

나. 유기 동물, 피학대 동물 발생 원인과 보호・해결방안 모색

다. 펫샵, 농장 동물, 실험 동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제시

라. 동물복지 인프라에 대한 행정 및 예산
1) 동물복지 세부계획 수립
2) 반려견 놀이터
3) 반려동물 교육센터
4) 동물복지지원센터
5) 직영 동물보호센터
6) 길고양이 중성화센터

마. 개 식용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책 방안 강구

바.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복지
- 동물복지와 사람복지를 연계

사. 학교 자율과정 속에서의 동물권과 동물복지 교육

4. 연구방법

가.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
나.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책과 법안 계획
다. 타 지자체, 관련 단체 방문
라. 전시회, '동물의 날' 과 동물복지 시상식을 통해 올바른 의식과 문화 확산

5. 세부활동계획

개최일시(예정일)	연구활동	세부내용
4월	유기 동물, 피학대 동물	유기 동물, 피학대 동물 발생 원인과 보호‧해결방안 모색
5월	펫샵, 농장 동물, 실험 동물	사각지대에 놓인 펫샵, 농장동물, 실험동물에 대한 실태 점검 및 해소를 위한 과제 논의
	동물복지 인프라 구축	동물복지 인프라에 대한 행정 및 예산 (장‧단기적 과제 도출)
6월	의원 간담회	동물복지 행정사무감사, 예산, 입법과제 점검
7월	개 식용	개 식용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책 방안 강구
8월	현장 의원 간담회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간담회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	동물복지와 사회복지의 연계
9월	학교 자율과정 속에서의 동물권과 동물복지 교육	학교 자율과정 속에서의 동물권과 동물복지 교육
10월	새로운 동물보호조례 정책 토론회	새로운 동물보호조례 제고를 위한 과제 도출 및 정책토론
11월	사진전	동물과 사람의 공존(착취와 해방의 고리)
	연구단체 전문가 간담회	동물복지 시상 심사 및 연구 활동 평가와 제언
12월	동물보호조례 발의	연구단체 소속의원 공동발의
	동물복지 시상식	동물복지에 대한 격려와 문화확산을 위한 시상식
	송년 의원 간담회	2023년 결산 및 2024년 연구방향 모색

6. 구성인원

군포시민, 군포시의원,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군포시 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YMCA, 동물보호단체, 서당개 모임, 초막골 강아지 모임, 군포시 비건모임, 이찬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Ⅱ 연구단체 활동

1 연구단체 활동 개요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간담회(제1차)
- 2023. 5. 30.(화),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 농장동물, 펫샵, 실험동물의 실태와 과제 논의
  (농장동물등의 현 실태와 문제점 사례연구 및 해결방법 논의)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군포시민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간담회(제2차)
- 2023. 8. 14.(월),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 개식용에 대하여(개식용의 법적 문제와 정치적 해결 방법 논의)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데일리벳 이학범 대표, 군포시민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간담회(제3차)
- 2023. 8. 25.(금),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
-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에 관한 토론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련단체, 군포시민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자원봉사활동
- 2023. 9. 10.(일),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활동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자원봉사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초청 강연

- 2023. 10. 14.(토),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
- 군포시를 위한 길고양이 문제 해결법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김하연 작가, 군포시민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동물보호 조례 정책토론회

- 2023. 11. 3.(금), 군포시청 본관 대회의실
- 동물보호 조례 정책 토론회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설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김하연 작가
  이왕희 연성대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
  윤대영 솔동물의료센터 원장
  남현정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부대표
  박미애 前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이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군포시 지역경제과장

2 연구단체 활동 보고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간담회(제1차)

○ 주 제 : 농장동물, 펫샵, 실험동물의 실태와 과제 논의
○ 일 시 : 2023. 5. 30.(화) 19시
○ 장 소 :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군포시민
○ 주요 논의 내용

1. 농장동물, 펫샵, 실험동물의 실태와 과제

1) 농장동물

① 공장식 축산이란?

② 농장동물의 삶

- 2022년~2023년 미국에서의 획기적인 법적 승리

: Lilly와 Lizzie는 "통조림"이 아니었다.

: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Ethan과 Jax

③ 시민실천 제안

① 공장식 축산이란?

우리나라 달걀과 돼지고기의 99%는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듯 육류와 달걀, 유제품을 생산하는 수익추구 우선형 축산 방법을 말한다. 공장식 축산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도의 사육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가축 분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야기. 또한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육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살처분 역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물의 생명체로서 욕구와 습성을 무시하고 최소 비용을 들여 최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밀집 사육하는 방식을 공장식 축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 공장식 축산이 많은데 이렇게 좁은 토지에서 많은 가축을 키우는 공장식 축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비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수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업 속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산다. 자리를 고쳐 누울 수조차

없는 작고 좁은 틀과 더러운 오물 속에 생활한다. 또한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 탓에 살충제, 항생제에 평생 노출된다.
평생 햇빛과 바람이 들지 않는 밀폐된 사육장에서 살던 동물들이 대부분 도축되는 날 태어나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축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깥세상을 처음 보는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들도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장식 밀집 사육과 감금틀 사육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동물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파괴하고 있으며 오염된 축사는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 인수공통감염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루빨리 '공장식 축산'과 '배터리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을 중단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고 비건 채식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이다.

공장식 축산업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가축 사육으로 발생되는 메탄의 기후변화 기여도는 상당하며, 가축 방목지와 사료 생산을 위해 아마존 숲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여전히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을 내세우고,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환경과 동물은 갈취의 대상이 되어 왔다. 토지로 이용하기 위해 숲이 벌목되고 산이 파헤쳐지며 갯벌이 매립되면서 그 안의 생명은 내쫓기고 죽음을 맞았다.

온실가스에 대한 정부의 감축 계획은 발전 부문을 넘어 전체 부문을 담아야 하고, 장기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심각한 동물착취의 온상인 거대한 축산업에 대한 대응 계획의 수립으로 기후위기의 가속화 및 농장동물의 심각한 복지저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많아도 너무 많은 동물들이 '상품가치 높은 고기'가 되기 위해 신체의 일부가 잘리고 몸을 누일 수 없을 환경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제 거대한 공장식 축산과 과도한 육식주의 문제를 직시하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② 농장동물의 삶

- 2022년~2023년 미국에서의 획기적인 법적 승리

: Lilly와 Lizzie는 “통조림”이 아니었다.

: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Ethan과 Jax

식탁 위에 올라오는 수많은 고기, 달걀, 우유 등을 생산하기 위해 길러지는 농장동물. 농장동물들은 생명이 아닌 오로지 돈과 생산성이라는 잣대 속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축되기까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고통 받고 있다.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공장식 축산의 생산기계로 취급 받으며 착취되고 학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동물학대는 공장식 축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이며, 알을 낳는 닭인 산란계는

A4용지의 2/3밖에 되지 않는 공간인 배터리 케이지에서, 어미돼지는 몸을 돌릴 수 조차 없는 공간인 스톨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함. 우유, 버터, 달걀 같은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빵이 있다는 건, 다른 음식 역시 동물들의 희생 없이도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겹살데이' 뒤에 가려진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돼지
돼지는 개와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겪는 지각력 있는 존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지능이 높은 동물로 손꼽힐 정도로 학습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높고, 서로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하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 땅을 헤집기도 한다. 몸에 땀샘이 거의 없어 진흙을 뒹굴며 체온을 낮추지만 밀집 사육 환경에서는 똥 속을 구를 수밖에 없어 더럽다는 오해도 받는다.

❝20년을 살 수 있지만 5개월 만에 마감하는 돼지의 삶?❞
사람의 나이로 100세 수명을 기대할 수 있지만 2세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평균수명은 15~20년이지만 5~6개월 만에 도살. 냄새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마취 없이 거세. 좁은 곳에 갇힌 스트레스로 서로를 물지 못하도록 이빨과 꼬리 자름. 감금틀 안에서 강제 임신과 출산의 끊임없는 반복. 지금 우리가 공장식 축산에서 인위적으로 돼지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

유럽연합은 어미돼지들을 스톨(stall)이라는 좁은 쇠틀에 가두는 사육을 이미 2013년부터 금지했다. 영국 연구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돼지의 감정 상태를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돼지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맛있는 식사로 기뻐하고 신체의 고통을 느끼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돼지는 지능이 75~85 정도로 개들보다도 높고 배변 장소와 먹이 장소를 스스로 구분해서 생활하며, 퍼즐 놀이나 공놀이가 가능할 정도로 기억력도 뛰어나다. 여러 연구를 통해 돼지는 기쁨, 두려움 등의 감정은 물론 공감 능력까지 갖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지난 60여 년간 10배 이상 폭증했고, 너무 많은 소비는 공장식 축산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당장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도 공장식 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물복지와 동물권을 향한 우리의 선택과 요구가 동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올바르다. 동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각력 있는 생명체이다. 그러나 국내 농장동물이 처한 공장식 축산 밀집사육 환경은 대량소비와 맞물려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는 해마다 약 3%씩

증가하였다. 소의 경우에도 소비 증가로 국내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량소비 대량생산 체계에서 동물은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 품종개변을 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품종개량 당한 젖소는 몸이 버티지 못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겪기도 한다. 인공적 임신으로 송아지를 낳아 빼앗기고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 끝에 젖소를 기다리는 곳은 도살장이다. 이 모든 일이 송아지를 위해 필요한 우유를 사람이 빼앗아 소비하기 위해서 생겨난다.

국내 공장식 축산업에서는 오로지 달걀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산란계 닭을 마리당 0.075m² 면적의 좁은 배터리 케이지에 가둔다. 최대 9단까지 겹겹이 쌓아올려진 철장안에서 닭들은 날개조차 펼치지 못한다. 옴짝달싹 못하고 알낳는 기계와 같은 삶 끝에 도살당한니다. 알을 낳지 못하는 산란계 수평아리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한다.

반면 유럽연합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2012년 이미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법으로 전면 금지했고, 현재는 닭을 작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대다수 산란계농장이 여전히 배터리 케이지 안에 닭을 밀집 사육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실이다.
돼지의 경우, 평균 자연수명은 15년가량이지만, 고기로 소비되기 위해 6개월령의 어린 나이에 도살된다. 작년 한 해에만 식탁에 오르기 위해 국내에서 도살된 돼지의 수는 1,800만이니다. 도살되기 전에는 사료 낭비를 없애고 분변 발생을 줄인다는 이유로 12시간 이상 밥을 먹지 못한다. 장시간의 굶주림은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돼지들은 공장식 밀집사육 환경에 갇혀 있고 굶주린 채 이동 중이며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③ 시민실천 제안

- 매년 4월 22일은 전 세계가 함께하는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연중의 환경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 이날은 지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환경변화, 무분별한 착취,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다. 단지 ‘지구(Earth)’가 아닌 ‘어머니 지구(Mother Earth)’라는 표현은 인간, 다른 모든 생명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 매년 10월 2일은 '세계 농장동물의 날(World Day for Farmed Animals)’
미국의 동물권 활동가 알렉스 허샤프트가 농장동물이 겪는 고통의 실체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을 따서 1983년 지정되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격언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 돼지, 닭, 양 등 전 세계 수백억의 농장동물들은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

는 곳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고기, 우유, 달걀 등을 생산하는 기계로 취급받거나 그들의 가죽과 털을 이용하기 위해 공장 같은 환경에서 억압 당하고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공장 속 동물이 기억하는 모든 순간은 끔찍한 고통의 연속. 태어나자마자 분쇄기 속으로 사라지는 병아리들이 있는가 하면 일명 ‘치킨 닭’들은 세상에 나온 지 35일밖에 안 되는 어린 상태에서 도계장으로 간다. 닭과 돼지, 송아지들은 날개를 펼 수도 없고 몸조차 돌릴 수 없는 감금틀에 갇혀 평생을 지내는 일이 태반이고 이들에겐 부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이빨 뽑기, 거세하기 등의 신체훼손이 마취도 없이 자행된다.

‘12시간 단식 캠페인’은 ‘식용’으로 도살되는 농장 동물들이 죽기 12시간 전부터 강제 금식하는 것에 착안, 그 시간만큼 단식을 진행하며 동물들의 고통을 기억하자는 취지. 올해 한국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등 시민 850여명이 이같은 취지에 동감, 단식에 참여 중이다.

- 육식 줄이기 운동(Meat Free Today!)

동물들의 불행한 삶과 잔인한 죽음을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동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최대한 많이 늘어나면 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동물보호를 자신의 신념으로 내세운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채식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선택의 범위는 넓다. 채식으로의 전환을 원한다면 이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동물권 활동가들의 채식주의에 있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장은 육식을 완전히 뿌리 뽑자는 일방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육류의 과소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의지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 사진자료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간담회(제2차)

ㅇ 주 제 : 개식용에 대하여(개식용의 법적 문제와 정치적 해결 방법 논의)
ㅇ 일 시 : 2023. 8. 14.(월) 19시
ㅇ 장 소 :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ㅇ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데일리벳 이학범 대표, 군포시민
ㅇ 주요 논의 내용

Ⅰ. 발제 : 이학범 대표(데일리벳)

1. 개식용 산업 현황

1-1. 한번쯤 품어봤을 의문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에 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조리·운반·보존을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범위에도 개는 미포함. (이에 포함되지 않은 개는 도살과 유통이 불가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는 불법이다. 현행법상 식품이 아니다.', '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판매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보건복지부(1984.6)】
21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은 조리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조. 축산물위생처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한 운용지침(84년도 6월 보건복지부) 혐오식품의 정의 :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보신탕, 뱀탕, 토룡탕, 굼벵이탕, 개소주 등의 식품을 말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상 가축 규정이 식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식품을 규제하는 것은 가축법이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다.

1-2. 산업 현황

개식용 산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

은 올해 2월 기준 1,156개로 파악되었으며,
◆ 전체 사육 마릿수: 총 52만 1,121마리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 450마리)
◆ 도살 마릿수: 연간 38만 8천여마리
그 외에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에 모두 1,666곳으로 집계되었다.

2. 동물단체, 육견단체 입장

“개고기보다 더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전 세계에 없다. 식용 개는 오직 식용의 목적으로 계량하고 사육되어온 전세계의 유일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것으로 코리아 김치처럼 개도 '코리아 K-고기'로 육성해야 한다. 선진국으로써 당당할 때가 됐다.” -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육견협회는 식용견이 별도로 있으며, 반려견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일부 동물단체가) 애완견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애완견은 상품 가치가 없고, 상인들이 취급하지 않아서 집에서 기르던 개는 식용으로 팔지 못한다. 농장에서 키운 식용견이 아니면 사가지 않는다.”고 한다.

개농장 사육 개들에게 항생제가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10곳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개는 강인하고 면역력이 강해 부패한 먹이를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항생제는 비싸서 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심지어 “식용견은 남은음식물(음식물쓰레기)을 무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로부터식육을 생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육견협회는 마지막으로 “개고기 식용금지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과제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불가능하다면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 한 군데 당 수십억 원씩 보상하면 된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그런 정도는 보상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3. 최근 개식용 금지 법안

초복(7월 11일)을 앞두고 개 식용금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과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논의 위원회’ 진행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위원회는 2년째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 시절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 식용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지난 4월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조례안을 냈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 시장의 책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엔 김건희 여사가 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Ⅱ. 토론자 : 윤미리(동물자유연대)

□ 토론 개요

○ 목적

시민 동물권 활동가 업종 종사자 등과 함께 산업의 실태를 자유롭게 토론하여 개 식용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더불어 최근 서울시의회 개식용 금지 조례안 및 국회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등의 사례를 살펴보며 40여 년 동안 공전하고 있는 개식용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개 식용산업 현황 소개, 조례안 및 법안의 문제점, 개선 방향 도출 의견 청취

○ 사진자료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간담회(제3차)

❍ 주　 제 :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에 관한 토론
❍ 일　 시 : 2023. 8. 25.(금) 19시
❍ 장　 소 :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련단체, 군포시민
❍ 주요 논의 내용

피학대동물 발생 원인과 보호해결방안 모색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 문제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나 박탈의 불가능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기대가 있지만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의무화: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 동물보호관 지정과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으로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법 제88조(동물보호관),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 동물학대 대응단계별 개선방향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는 사적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보호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 여러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수사 단계', '사후관리 단계'별로 개입절차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의 대응체계를 참고하는 동시에 동물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단계별 중앙부처, 지자체, 수사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구조의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A. 예방 및 발견 단계
예방 및 발견 단계는 학대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단계와 학대 발생시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발견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1) 예방단계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을 위해 일반시민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양육 태도 및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방지 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부모교육만 하더라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영유아기 자녀 부모, 학부모 등으로 대상을 나눠교육을 진행 중이다.

반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교육은 주로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지자체에서만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려인 대상의 펫티켓이나 사회화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 동물학대 예방에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동학대와 비교한다면 교육 내용, 교육대상, 전달체계 모든 면에 있어 부실하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와 같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보호교육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인의 경우 대상을 특정해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해 추진 중인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반려동물판매업점(펫샵)에서 반려동물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에서 이러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거나, 현재 계획상으로는 펫샵에서 분양을 받을 때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하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거나 지인에게 받은 경우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 예방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동물학대 예방교육 인프라 및 전달체계 부족 2. 반려동물 입양/분양시 검증절차 부재	1-1. 민간 동물보호교육 지원 1-2. 펫숍 분양시 사전교육 의무화(시행 예정)	1-1. 학교 교육과정 내 동물학대/동물보호교육반영 1-2. 반려동물 양육시 사전 교육 의무화 2-1.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2) 발견단계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제2항).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24개 직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 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해당 시스템은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아동학대 등 위험징후를 예측한다.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이 직접해당 고위험가정을 방문해 조사와 상담으로 실제 가정위기상태를 점검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배포와 교육을 진행,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제출한다.

이에 반해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지 자체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단 408명만 지정되어 지자체 평균 1.6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상 이들에게 주어진 직무의 범위만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로부터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반려동물 영업자의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등 12개 항목이 있다. 지나치게 많은 직무가 주어져 이들에게 동물학대를 예방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기대하는 게 어려우며,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은 동물학대를 당한 동물을 발견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달리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조항 부재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얼마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육/기관의 출석기록, 병원기록 등을 통해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이런 기록이 없어 학대행위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발견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반려동물 양육현황 등 기본정보 부족 2. 감시인력 및 체계의 미비 3.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 의문	1-1.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 강화 1-2.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2-1. 동물보호 특사경 확충 3-1.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2-1. 현재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을 민간단체 활동가 등으로 확장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업구조 구축 2-2. 동물보호전문기관 설치 3-1.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 3-2.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교육 의무화

B. 신고 및 수사 단계

-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계수사(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현장에도 함께 출동한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동행출동은 2013년 552건에서 2016년 14,594건으로 증가했다. 현장조사 후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실시, 검사를 통해 청구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를 결정한다.

1) 사건수사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시 현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만 출동할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하거나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며, 사건 자체가 통보 누락되기도 하고, 경찰의 1차 출동 통보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시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현장에서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반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만 현장에 나갈 때는 학대행위자의 방해 등으로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한다.

- 동물학대의 경우에도 사건을 목격한 시민이나 동물보호단체가 신고에도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 2017년 10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서 자신의 딸이 반려동물로 키우던 햄스터 19마리 중 11마리의 목을 니퍼로 잘라 죽인 사건이 발생. 당시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신고자가 머뭇거리자 현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

- 2020년 11월에는 영업이 끝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업주가 신고하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응하는 사이 해당 남성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안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확인했지만,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추후 피해자가 주변 CCTV를 확인해 남성의 납치사실을 입증하였으나 결정적 증거에도 경찰은 “집 수색 결과 강아지가 없었다”며 “강아지는 핸드폰 급이다(물건과 같다는 의미)”, “강아지 실종은 보호소에 알아보라”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결국 반려견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후 해당 남성의 집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따라서 동물학대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동물학대수사 매뉴얼’을 개정/보완하는 한편, 현장 출동시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거나 협업하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또 동물학대사건의 경우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수의사가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경찰의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부족	1-1. 경찰 수사매뉴얼 개정/보완 (완료) 1-2. 경찰 대상 직장내 교육으로 동물보호교육 진행 1-3. 현장 출동시 수의사 동행 또는 피학대 의심 동물에 대한 수의사 검진 의무화	1-1. 동물학대사건시 동물보호단체 동행 의무화 1-2. 가정폭력 발생시 반려동물 이 있는 경우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 병행

2) 피학대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일시보호 등을 조치한다.

-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4조에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및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격리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 △격리조치 대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재량 범위가 협소다는 점 △격리기간과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그러므로 격리시점에 대해 '즉시'와 같이 명확히 하거나 '긴급격리'와 '보호조치' 등으로 사안의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격리조치의 대상 역시 '피학대 동물 또는 학대가 우려되는 동물'로 확장하고, 격리조치 후 학대 재발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충분히 격리하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진자료

군포시의회 동물복지포럼

군포시의회 동물복지포럼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에 대한 논의

군포시의회 동물복지포럼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에 대한 논의
일시
19:00
장소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자원봉사활동

○ 주　제 :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활동

○ 일　시 : 2023. 9. 10.(일) 10시

○ 장　소 : 동물보호센터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자원봉사자

○ 주요 활동내용

- 유기동물 사료 및 물 급여 및 보충
- 유기동물 보호소 유기동물 산책
- 견사 청소 및 쓰레기 정리 등

○ 사진자료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초청 강연

○ 주　　제 : 군포시를 위한 길고양이 문제 해결법

- 민관협력을 통한 길고양이 문제 성공 사례와 군포시 길고양이 문제 해결 방법

○ 일　　시 : 2023. 10. 14.(토) 19시

○ 장　　소 :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

○ 강 연 자 : 김하연 작가

○ 참 석 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김하연 작가, 군포시민

○ 주요 내용

1. 효과적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방식

-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은 늘 많은 어려움을 함께하며, 길고양이를 보고 밥이나 물을 챙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길고양이가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유로 고양이를 혐오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음.
-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고, 길고양이에게 양질의 사료와 물을 제공하며 쓰레기봉투 훼손 문제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식소에 찾아오는 개체 중 중성화가 필요한 개체 수를 파악하고 TNR을 진행해야 효과적인 개체 수 관리가 가능하게 됨.
- 경기도에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더 명확해짐.
-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경기도에 2019년부터 53곳의 급식소를 설치했음.

2. 아파트 내 길고양이 문제 접근법과 해결 방법

-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아파트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동시에 길고양이의 인식개선 사업도 필요
- 민원 발생 여지가 적고 공적관리가 수월한 지역에 민관이 협력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3. 안전한 중성화 사업을 위한 시민의 역할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후 원래 자리에 다시 풀어줌으로써 고양이의 번식력을 낮춰 장기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줄어들게 하고 번식기 동안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사람의 주거 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안정적으로 공생하도록 하기 위함임.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은 마리당 15만원이 소요되는데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줌.

4. 서울시 관악구 사례로 알아보는 민관협력사업 방식의 효과

- 서울시 관악구는 길고양이와의 공존방식으로 급식소 21개소를 설치하였고,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을 돌봐오던 곳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집중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지역임.
-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22년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하였음.

5. 공감받는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 실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설치되기까지는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숙제로 남아 있지만 지속적인 중성화 사업 및 공공급식소 설치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야 함.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및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사진자료

군포시의회 동물복지포럼
군포시를 위한
길고양이 문제 해결법
강의 안내
2023. 10. 14.(토) 13시~17시
강의명
군포시를 위한 길고양이 문제 해결법
장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강의내용
민관협력을 통한 길고양이 문제 성공 사례와 군포시 길고양이 문제 해결 방법
대상
길고양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군포시민
문의
군포시의회 입법홍보팀 031-390-8730
※ 참가비 무료
강사 김하연 작가
주최·주관 군포시의회
나는
동네고양이입니다.
군포시 고양이 사진전

군포시를 위한
길고양이 문제 해결법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동물보호 조례 정책토론회

○ 주 제 : 동물보호 조례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23. 11. 3.(금) 19시

○ 장 소 : 군포시청 본관 대회의실

○ 참석자

-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연구의원
-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설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 김하연 작가
- 이왕희 연성대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
- 윤대영 솔동물의료센터 원장
- 남현정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부대표
- 박미애 前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 이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최명수 군포시 지역경제과장

○ 주요 논의 내용

▣ 발제

1) 발제 1 :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설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관사업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는 가장 높은 이유는 '동물을 좋아해서'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쉽게 양육을 시작하나,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국내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130,401마리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반려동물 입양을 위해 반려견 보호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결론** : 반려견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개식용 금지법의 제정, 번식장 및 펫샵 관련 엄격한 규제 및 관리·감독 필요, 반려견 유기 및 학대시 강력한 처벌 필요, 입양 문화의 확대 및 정착화를 제시함.

2) 발제 2 : 김하연 작가

-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뜻함
-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동물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10월 기준 17개의 광역 및 특별지자체에

서 제정하여 시행 중임.

- 군포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두고 있음. 물론 위 조례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충주시, 광명시 등 지자체 조례를 비교하고 반영하여 길고양이 관리와 중성화 실시 등의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결론** :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절실함.

▣ 토론

1) 토론자 1 : 이왕희 연성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

- 길고양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혐오수준부터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수준까지 매우 다양함.
- 길고양이를 규정하거나 개념정의하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하며, 길고양이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 그대로 여과없이 주저없이 표출되기도 하여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기도 함.
- 길고양이 돌봄이 공공의 영역인지 개인의 영역인지를 명확화하여야 함
- 현재 캣맘이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캣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돌보는 일은 여자가 해야한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어 돌보미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함. 한때 동물보호단체 카라에서 캣테이커라는 용어를 주장하였으나 용어에서 전달하려는 의미나 뉘앙스가 캣맘보다 약하고 발음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널리 전파되지 못한 사례도 있음.
- 향후 돌봄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돌봄 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그간의 부정적인 캣맘활동과도 일정한 단절을 위해서도 돌보미 용어 사용이 바람직함.

2) 토론자 2 : 윤대영 솔 동물의료센터 원장

- 동물들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어미와 떨어져있어 면역력이 약한 상태인데다가, 수많은 새끼들과 섞여 있어서 전염병에 취약함.
- 진열장에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서 행동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충동적 입양으로 인한 유기 동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입양자의 환경이 고려되지 않음
- 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한다면, 분양 후 유기동물이 감소되며, 출생환경 파악을 통한 복지가 증대될 것응로 예상됨, 또한, 분양되지 않은 펫샵 동물들이 식용 등 불법으로 판매되는 것 또한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토론자 3 : 남현정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부대표

- 관리하던 급식소나 밥그릇이 사라지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일은 너무나 흔하며, 이는 동물혐오의 전형적인 사례임.
-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함. 급식소 관리자를 지정하고 부서와 서로 조율하여 동물 복지와 사람에 대한 복지를 한 곳으로 하여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정책을 펼쳐야 함.
-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대응과 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리자와 함께 내용을 공유

하며 개선점을 찾아야 함.

4) **토론자 4 : 박미애 前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 위협과 폭력·굶주림이나 착취에 고통을 느끼는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공포하며 두려움에 떠는 존재임.
- 우리가 목도하는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문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 그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임.
- 최근 반려묘나 반려견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 관련된 산업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부정적인 모습도 상당 부분 보이고 반려동물 유기와 캣맘/캣대디에 대한 혐오 확산 및 동물보호협회에 대한 반대 민원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동물에 대한 태도나 인식 교육 등이 절실할 것으로 보임.

5) **토론자 5 : 이우천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여러 통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000만에서 많게는 150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측됨.
-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한 동물학대 및 유기 등 사회적 문제도 함께 야기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음. 섣부르게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서 추후에 양육 소홀, 동물의료비 부담 증가 및 그 밖에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반려동물의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고, 반려견이 생을 다하기까지 책임감 있게 양육할 의지를 갖지 못한 채 섣부르게 입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양육하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감이 절실함.
- 반려동물은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식하에서 반려동물의 입양 절차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학대·유기 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 처분을 설계하고, 학대 받은 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구조·보호 조치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토론자 6 : 최명수 군포시 지역경제과장**

- 집행부 소관부서로서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음.

■ 질의응답

- 문) 조례 제정시 실질적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지?
- 답) 현재 조례 입안 중에 있으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이혜승 대표의원)

▣ 향후계획

- 군포시 동물보호 조례 제정 검토 및 안건 상정
  (동물 구조 ·보호조치,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동물입양관리,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 사업 확대를 통한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 추진

○ 사진자료

Ⅲ 언론보도 자료

경인매일

HOME > 경기 > 경기서남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포럼 시민 강의 개최

권영창 기자 | 승인 2023.10.06 16:58

> -김하연 사진작가 초청해 길고양이 이야기 공유

길고양이 문제 해결법 포스터 [사진=군포시의회]

[군포=권영창기자] 군포시의회가 효과적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에 대한 공론의 계기를 마련한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군포시를 위한 길고양이 문제 해결법'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한다.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포럼이 주관할 이번 강의에는 길고양이 사진작가로 유명한 김하연 작가가 강사로 나서 효과적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방식, 아파트 내 길고양이 문제 접근법과 해결 방법, 안전한 중성화 사업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설명한다.

또 김하연 작가는 관악구 사례로 알아보는 민관협력사업 방식의 효과, 공감받는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이날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혜승 의원은 "지난달 9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김하연 작가의 '길고양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강연을 듣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길고양이 문제를 알리는 동시에 함께 해법을 고민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창 기자

BreakNews

브레이크뉴스

천만 반려동물 시대... 군포시 반려동물 정책 토론회 열려

기사입력시간 : 2023/11/03 [18:21:00] 배주은 칼럼니스트

군포시의회는 11월3일 군포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동물복지 현형과 군포시의 과제'를 주제로 동물보호 조례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군포시는 시민들과 반려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를 시행한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포럼은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설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과 길고양이 전문 김하연 사진작가를 초빙하여 반려견과 길고양이 관련 복지 현황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하연 작가는 군포시의 길고양이 관련 조례와 타 지자체의 길고양이 관련 조례를 설명하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성화, 급식소, 화장실 등의 문제를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인 활동만으로는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길고양이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두 번째 발제로 이혜원 소장은 '반려견 복지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혜원 소장은 개물림 사고, 개농장, 식용견 문제 등 국내 반려견 문화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미 논란이 되어 온 개농장 뿐 아니라 신종 펫샵의 지나친 상업적 운용 등 문제가 심각하다. 다행히 현재 개식용 금지법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군포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없다. 하루빨리 선진 반려견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이왕희 연성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 ▲윤대영 솔 동물의료센터 원장 ▲남현정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부대표 ▲박미애 전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이우천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군포시 지역 경제과장 등이 참석해 각 주제별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 붙임 2

집행 관련 증빙자료

(단위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현수막 제작	55,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현수막 제작	55,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현수막 제작	25,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현수막 제작	44,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 포럼) 자원봉사 및 간담회 음료구입비 지급	23,3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 포럼) 자원봉사 및 간담회 급식비 지급	184,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포스터 제작	330,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포스터 제작	330,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현수막 제작	110,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현수막 제작	110,000	
의원연구단체(군포시 동물복지포럼) 명패 제작	22,000	
군포시 동물복지포럼 조례 정책토론회 토론회 수당 지급	900,000	
집행 총액	2,188,300	
집행 잔액	526,700	